

희석된 지분율에 사모펀드 개입... 알짜기업 '경영권 위태'

경영권분쟁 사례 살펴보니

12월 결산법인들이 오는 3월 '기업 청문회'로 불리는 주주총회 시즌에 본격 돌입한다.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표 대결이 예고된 알짜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막판까지 법적공방과 함께 지분 확보를 위한 공수 양측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앞치락뒤치락'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태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업체의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 연합의 대결이 한층 격화되면서 반전예 반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경영권 싸움은 지난해 9월 공개매수에 돌입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영풍·MBK 연합이 낮은 가격을 써냈지만 예상과 달리 승리했다. 영풍·MBK 연합이 초반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3일 임시주주총회 전날 '상호주 제한' 방식으로 영풍·MBK 연합 측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상황을 역전시켰다.

영풍·MBK 연합이 '상호주 제한' 방식에 대해 불법을 주장하며 최윤범 회장 등을 형사 고발하고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신입 사외이사 7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최 회장은 5일 영풍 정기주주총회에 집중투표제와 현물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역으로 영풍 이사회 진입을 노리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나온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아워홀 마곡 본사 전경.



/아워홀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고려아연 세계 1위 경영권 두고 최윤범 vs 연합 대결 '반전에 반전'

티웨이항공-대명소노그룹 대명소노, 티웨이 2대 주주 올라 내달 주총이후 최대주주 오를지도

◆티웨이항공 창과 방패의 대결

티웨이항공의 경영권을 둘러싼 대명소노그룹과 예림당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주총을 한 달여 앞두고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에 나선 대명소노그룹은 쏘비치·소노캠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국내 리조트 업계 1위 기업이다.

대명소노는 지난해 7월부터 JKL과 트너스가 보유한 티웨이항공 지분을 사들이면서 2대 주주에 올랐다. 1대 주주인 예림당과 지분율 차이는 3.3%포인트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서는 '항공사업 TF'를 출범시키는 등 대대적으로 경영권 확보를 예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대명소노그룹은 3월 주총을 앞두고 사측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웨이항공 이사회에서 소노 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증자에 참여하는 소노가 단숨에 최대주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대명소노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룹사 자산총액과 경영현황, 자

금력 측면에서 예림당을 앞서는 건 사실이다. 최대 주주간 체급 등에서 격차가 크다는 점을 앞세워 주주들의 표심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명소노는 오는 6월 에어프레미아의 주총에서도 본격적인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명소노는 두 회사를 합쳐 새로운 항공사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워홀 남매간 경영권 분쟁 속 한화그룹 합류

국내 2위 단체급식 업체인 아워홀의 남매간 경영권 분쟁에는 한화그룹 3남 김동선 한화캐리리더·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이 뛰어 들었다.

아워홀 창업주의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회장은 매각에 긍정적이다. 이들의 지분은 57.84%로, 8600억원에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계약을 한 화그룹과 2월 중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변수는 아워홀 오너일가 막내인 구지은 전 부회장의 경영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이다. 장남과 장녀에게 경영권을 뺏긴 구지은 전 부회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구지은 전 부회장은 한화그룹 측에 현 경영진인 언니·오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장했다. 회사 내 정관을 활용한 것으로

아워홀 경영권 매각-확보 두고 장남·장녀 vs 막내 '남매 분쟁'

한미약품 임종운 이사-3자 연합 사이언스 341만9578주 매각계약 올해 경영권 갈등 '종지부'에 관심

효력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또 현 경영진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을 넘어야 한다.

◆한미약품 경영권 갈등 1년, 새로운 전환점 만나

1년 넘게 끌어온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갈등이 올해 종지부를 찍을 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종운 한미약품 부회장 모녀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추진했다. 이후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운·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반대하며 한미약품그룹은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게 됐다. 초반에 형제 측을 공개 지지했던 한미약품그룹의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모녀 측으로 돌아서는 등 경영권 갈등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임종운 대표이사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모녀 측과 형제 측이 5대 5 동수를 이루었다.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이사를 앞세워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해 왔다. 한미약품 이사회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임종운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 측 6명, 임종운·종훈 형제 측 4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장남 임종운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사내이사가 3자 연합 측과 뜻을 함께하기로 하면서 한미약품그룹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임종운 사내이사가 3자 연합 측과 한미사이언스 주식 341만9578주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임종운 사내이사는 한양정밀에 한미사이언스 주식 205만1747주를 759억원에, 길링턴 유한회사에는 136만7831주를 506억원에 장외 매도했다. 임종운 사내이사가 내놓는 주식 규모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 수준이며, 임종운 사내이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주식 806만5822주의 42.3%를 처분하게 됐다. 오는 3월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늦어도 3월 초에는 임종운 대표가 추가적으로 의사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양성운·이청하 기자 ysw@metroseoul.co.kr

>> 1면 '34조 규모 배터리...'서 계속

전세가율 17개월 연속 상승... 수도권 집값 오르나

1월 아파트 전세가율 68% 역대최고 "수도권 '매매전환' 집값상승 유도 미분양 많은 지방, 시장회복 어려워 갭투자·강통전세 위험 동시 상승"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17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전세가율 상승이 매매가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반면 지방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로 2022년 11월 조사 표본 개편 이후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4.1%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인천(67.6%), 경기(66.0%) 등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전세가율 상승이 매매가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요 지역에서는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으며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뉴시스

일부 단지에서는 매매 호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로 인한 개발호재, 기존 인프라 등으로 전세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면 전세 세입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로 전환하면서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서도 충북(78.8%)과 전남(78.5%) 등에서 전세가율 상승세가 확인됐지만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인해 전세 수요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약식 미분양) 주택은 1만4802가구로 전체의 79.4%를 차지하면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 교수는 "지방의 경우 전세가율

이 상승하고 있지만 매매가가 이미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여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세 수요도 줄어들어 전세가율 상승이 시장 회복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문제인 인구 유출과 감소 문제로 인해 매매시장 반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세가율 상승이 반드시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갭투자가 쉬워지지만, 동시에 '강통전세'(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상태) 위험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가율 상승에 따른 주택 시장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별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 양극화와 함께 지방 시도 내에서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며 "지역별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崔 대행 "산업발전 위해 반도체법 등 조속 처리를"

아울러 미국 신(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당초 어제(4일) 시행 예정이던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와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같은 대책을 발표한 후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지역활성화 펀드에 3조원 추가 투자할 목표를 갖고 있으며,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syj@

정치권, '연금개혁' 한 목소리... 조기대선 대비 표심 확보

여야정 '골든타임' 공감대
양당 지도부 의제 선점 나서
이달 중 개혁안 처리 가능성



한 시민이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연금 개혁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양당 지도부에서는 연금개혁의 공을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 공방이 한창이다.

지난 3일 임시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여·야는 '연금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접쳐지는 만큼, '연금개혁'이란 주요 의제를 선점해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에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14일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

부했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개최하고 향후 개혁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부분에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9% 수준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부분에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 여·야 모두 이달 내에 연금개혁을 심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공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여·야 간 더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보장성에 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며 "복지위 차원에서 속도를 내면 (모수개혁은) 2월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월을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달 신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국회

에 발의된 22개 국민연금 개정안은 모두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한 견해가 같다"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올 하반기로 넘어가면 정치권에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여·야 모두 2월 내 연금개혁 성사를 목표로 일부 합의를 이룬 가운데, 양당 지도부에서는 연금개혁 의제의 선점에 나섰다. 연금개혁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른 만큼, 표심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불발한 것이 여당 책임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한 연금개혁을 누가 제안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연금개혁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민주당이 양보해 연금개혁이 성사될 것 같으니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던 것을 인정하라"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최근 야당이 연금개혁에 열을 올리는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반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처럼 연금개혁을 단기간에 완수할 자신이 있었다면 왜 문재인정부 때 하지 않았냐"며 "최근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띄우는 이유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공학"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된 모습이지만, 정치권 내에서도 연금개혁이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여·야 간 일부 합의된 모수개혁은 최종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오는 9~10일 사이에 개최하는 '국정협의회 4차 회담'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나간다.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oul.co.kr

트럼프發 글로벌 관세전쟁

'수요-공급' 곡선 요동... 산업계 부담 가중

美·中 추가 관세 등 불확실성 가중
정유업계, 고부가 제품 수출 주력

'트럼프 관세장벽'으로 국제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 정유사들의 실적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업황 악화 속에서 정유업계는 트럼프 관세 유예 조치에 따라 수요 공급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정제마진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중국의 보복 대응 발표 이후 1.9% 하락해 배럴당 72달러로 떨어졌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5달러에 근접했다. 이날 국제유가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경제 악화와 미·중 무역 갈등 우려로 하락했으나, 이란에 대한 제재로 원유 수출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락 폭이 제한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유업계는 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글

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원유 수요가 지속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높은 가격에 원유를 구매할 후 유가가 하락하면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해 추가적인 적자가 불가피할 수 있다. 반대로 유가 상승 시 단기적으로는 큰 이익을 얻을 수는 있으나 제품 수요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변동성이 클수록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더욱이 정제마진 약세까지 겹쳐 정유업계는 이중고를 앓고 있다. 지난 1월 평균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배럴당 2.1달러로 지난해 4분기 평균 5달러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제마진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서 운영비용과 유가 등 원자재 비용을 뺀 수치다. 통상 5달러 수준을 손익분기점으로 여긴다.

정유업계는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제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에 주력해 수출의 질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가 수출한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1억 1189만배럴, 2억 166만배럴이다. 고부가가치 제품인 항공유 수출량도 전년 대비 3% 늘어난 8826만 배럴로 조사됐다. 휘발유와 경유의 선전에 힘입어 전체 석유제품 수출도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4억 9045만 배럴로 집계돼 2018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원유 9억 3465만배럴 중 52.5%를 정제해 수출한 셈으로 수출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비교적 선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업황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정인교 "기업 '헬프데스크' 즉시 가동"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조치 확산 주목... 총력 대응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주요국 대응현황 긴급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조치 시행을 유보했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관세조치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총력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트럼프 행정부 관세조치와 관련 "통상당국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현지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코트라 무역관에 우리 진출기업 애로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열고 "캐나다·멕시코 관세조치 유예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조치 발표와 캐나다·멕시코 유예, 여타 국가 및 품목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미국발 관세조치 불확실성에 대응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일본 등 5개국 상무관과 무역관장이 참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산업부는 유럽연합 등 여타 주요국까지 포함해 관세조치 관련 현지 대응 점검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유사 입장국들과 대응방안 논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종룡 '책임론' 강조... 중징계 가능성

(우리금융회장)

금융업계 불법대출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 이목집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엄중 제재',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검사결과'에서 우리은행의 경우 2334억원(101건)의 부당대출이 확

인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은 기준에 알려진 350억원 이외에 추가로 380억원이 적발돼 총 730억원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운데 451억원(61.8%)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지난 2023년 3월) 이후 취급됐다고 명시했다.

이복현 원장은 손 전 회장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임종룡 회장 등 경영진의 '책임론'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에 대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혐의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5개월 간 미보고함으로써 금융권 검사 및 검찰 수사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부당대출 원인에 대해 최고경영자(CEO)가 책임 중 외형 확대에 치우쳐 과도한 경영목표를 제시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직원이 건전성 리스크 관리, 이사회 절차 등을 경시했다고 분석했다.

우리은행 고위임직원의 부당대출 취급분 1604억원 가운데 987억원(61.5%)이 임 회장 체제에서 발생했고 이중 1229억원(76.6%)은 부실화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부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며 "법규 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

한 책임 물을 것이란 분석이다. 임종룡 회장의 중징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종류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 제재는 문책경고 이기 때문에 임종룡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금융원이 CEO 제재를 직접 강조하기 위해 명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보장분석 AI, 디지털창구까지”... 고객중심 보험 혁신 가속



⑫ 신 창 재 대표이사

교보생명은 올해 영업·마케팅 혁신에 중점에 둔다. 고객가치 중심의 비즈니스 혁신 가운데 고객경험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경영전략회의에서 임직원들에게 “고객가치 중심의 비즈니스 혁신을 이뤄내자”며 “비즈니스 혁신 가운데 고객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마케팅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 서울 광화문 사옥.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

◆ 생명보험 본연의 가치

교보생명은 2025년 가족보장과 건강보장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균형 잡힌 보장을 제공한다. 저출생·초고령화로 생명보험 수요 감소에 따른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돌파구로 생명보험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포석이다.

신창재 의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돌파할 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생명보험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족보장·건강보장 중심으로 고객에게 균형 잡힌 보장을 제공하면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생명보험 본연의 가치에 집중한 종신보험인 ‘교보상속든든 종신보험’을 지난 11월 선보인 바 있다. 해당 상품은 고액의 사망보장이 가능하고 상속세 재원 마련을 돕는다. 무해약 환급금형에 최저해약환급금 미보충형 구조를 채택해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더 큰 사망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상속세 재원 마련에 초점을 맞춰 생명보험 본연의 가치에 집중한 종신보험을 선보였다”며 “합리적인 보험료로 고액의 사망보장을 준비할 수 있고 상황에 맞게 보험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상품과 함께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과의 연계로 생명보험의 가치 실현에 나서고 있다. 교보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도입된 지난해 11월 우수고객 17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종합자산관리 세미나를 열고 종합자산 신탁의 취지와 활용방안에 대해 안내해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객 맞춤형 사망보험금



서울 종로구 국립서울농학교에서 열린 ‘친환경 실천 기부 캠페인 숲이 있는 운동장 기부식’에서 이명길 교보생명 교보다솜이지원센터장(뒷줄 오른쪽 세번째)과 임갑필 국립서울농학교장(뒷줄 왼쪽 여섯번째), 오바로로 국가환경교육센터장(뒷줄 오른쪽 첫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설계가 가능한 보험금청구권신탁 준비에 힘써 왔다”면서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에 힘쓰는 한편 종합자산신탁을 활용한 고객 자산 맞춤형 일대일(1:1) 토털솔루션을 제공해 종합자산관리회사로서의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사망보험금을 계약자가 원하는대로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신탁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2주 만에 100호 계약을 돌파해 눈길을 끌었다

종신보험 출시, 차별화된 보장 제공 보험금 신탁 연계, 자산 관리 강화 AI 보장 분석 도입, 설계사 지원

디지털 창구 도입... 편의성 증대 고객 니즈 기반 맞춤 서비스 확대 차별화 전략... 경쟁력 확보 총력

◆ 시장 선도 상품·서비스

교보생명은 고객 수요 기반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전달하는 비즈니스 혁신을 이어간다는 것.

교보생명은 차별화된 고객 경험 확대를 위한 혁신에 적극적이다. 지난 12월에는 교보생명이 개발한 ‘보장 분석 AI 서포터’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처리를 통해 방대한 양의 보장 분석을 쉽게 요약해 설계사에게 핵심 사항만을 제공한다. 교보생명은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총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받았는데 이는 보험업권 최다 건수다.

아울러 ‘디지털고객창구’도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다. 디지털고객창구는 일부 혼잡한 고객플라자의 일반 상담창구를 대체할 수 있어 고객입장에서는 대기 시간을 줄이고 회사입장에서는 상담 창구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신창재 의장이 올해 전사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가치 중심의 비즈니스 혁신을 이뤄내자고 강조한 만큼 한층 더 심화된 고객경험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창재 의장은 2025년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의 숨은 니즈와 페인 포인트(pain point·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지점)를 파악하고 차별화된 상품·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경쟁력 강화와 타 회사와 다른 고객 가치를 주문하고 있다.

그는 ‘2025출발 조회사’에서 “어려운 경영환경을 돌파할 출구를 찾기 위해선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생명보험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선 가족보장·건강보장 중심으로 고객에게 균형 잡힌 보장을 제공하면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객 니즈 기반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퀄리티(Quality) 기반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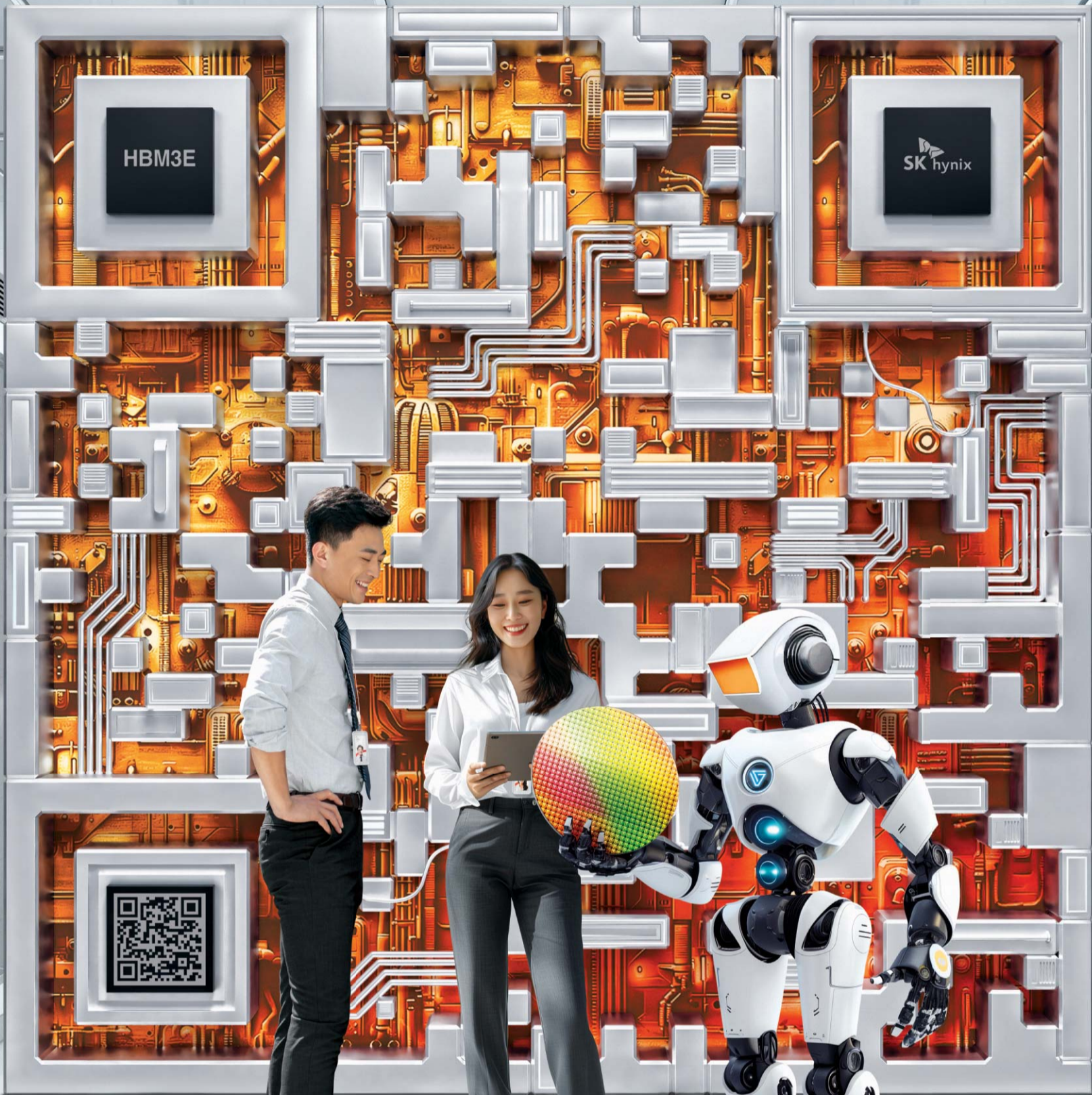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왼쪽 일곱번째)이 충남 천안 교보생명 계성원(연수원)에서 ‘2025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를 마치고 우수 지점장들과 오찬을 함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We Do Technology | SK hynix

내란 국조특위, '與·尹·김용현' 불참에 구치소 청문회 불발

김용현 “재판 준비 등으로 바빠 거부”
법원 폭동 청년에 영치금 보내기도
尹, 출석 요구서 등 무시… 침묵 일관
불출석 대해 제재 조치 검토할 것
오늘 3차 청문회 예정… 출석 촉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일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중요인무종사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찾아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를 찾아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여당 측 특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 등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김 전 장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특위 위원들은 반발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서 민주 헌정 질서 침해하고



내란국조특위 안규백 위원장(앞줄 오른쪽)과 최규철 서울동부구치소장(앞줄 왼쪽)이 5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 청문회장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위원들과 함께 비공개 신문을 위해 수감동을 찾아가고 있다. /뉴시스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장에 나와서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할 시간에 여전히 국회 조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비루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규철 동부구치소장은 특위 위원에게 “특사경 팀장이 김용현 수용자를 만나서 현장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

하고 이야기했다.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거부 사유는 재판 준비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본인이 극구 사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접견을 와서 변호인 접견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들은 비공개로 5명으로 인

원을 줄여 보안 구역으로 이동해 김 전 장관을 만나보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김 전 장관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중에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 측을 통해 전달한 편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수감된 60여명의 청년들에게 영치금을 넣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오후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를 찾아 청문회를 열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병도 특위 간사는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증인 소환 노력을 다했다. 출석 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무시하고 있다”며 “특위 위원들이 직접 왔음에도 끝내 문을 걸어잠근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견 단

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의 불출석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비겁한 작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다.

이후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로 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 위원 5명은 비공개로 서울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다.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일(6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장관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핵심 수출기업 연구소장 국회 초청

“트럼프 2.0 시대, 산업 포트폴리오 변화·AI 지원 등 필요”

공통적으로 인력 고도화 문제와 불확실성 속 정부 정책 중요 지적
무렵 통계 등으로 美 조야 설득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주요 수출 기업 연구소 소장들을 국회로 초청해 ‘트럼프 2.0’ 시대의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를 묻자, 이들은 산업 포트폴리오 변화, AI(인공지능) 집중 지원, 인력의 고도화 문제를 정치권과 행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민주연구원 주최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란 주제로 종합간담회를 열었다. 민주연구원은 차례로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중소·중견기업 등 주요 수출 품목 관련 기업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고, 종합간담회는 그간의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고 트럼프 2.0 시대 수출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날 종합간담회엔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송경열 SK경제경영연



이재명(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산업정책 경청간담회에서 당내 경제 관련 위원회 및 기업·경제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구소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김 건 HMG경영연구원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종합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과거 한 때 우리가 중진국 입장에서 우리 산업 발전을 기획할 때는 정치나 관료, 특히 전문 관료들의 실력이 충분해서 정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정부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과 행정관료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아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참석하신 분들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했고, 한 참석자는 산업 포트폴리오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고, AI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

요하다고 했다”며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인력에 대한 이야기였다. 인력의 양적, 질적 변화가 중요한데, 특별히 인력의 질적 고도화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었으나 현재는 그문제가 극복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중소기업 측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에너지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 부분은 우리 당 의원들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참석자들은 국제정세나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서 정부 정책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했다”며 “특히 지난해에 이 대표가 말한 것처럼 기업이 앞장 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무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과 정치권이 노

력해야 하는데,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에서 만드는 통계자료를 정치권이 적극 활용해서 미국 조야를 설득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이어 “무역협회 통계가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다. 분기별로 수출 경기를 전망하는데, 반도체 전망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라며 “대미 흑자의 원인 등에 대한 분석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했는데 중간재 수출 과정에서 현지 공장 가동을 위한 수출이 있을 수 있고 공장이 일지리를 만들고 미국 수출에 기여한 바를 정리해서 미국 재계와 조야를 설득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참석자들이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반도체 특별법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느닷없이 11월 달에 주52시간제 이슈가 나오면서 몇달째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며 “정책 디베이트에서 지켜봤듯이 충분히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면 합의가 안 될 수 없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로 지연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합의한 대로 진행된다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의원 중에서 나왔고 재계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전력 없이 AI 혁명 없어”… 전력망특별법 처리 촉구

고덕변전소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여야 이견 좁혀 국회 통과 채비 마쳐

국민의힘이 5일 경기 평택시 반도체 특화단지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전력 없이는 인공지능(AI) 혁명이 없다”며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삼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

은 이날 오전 평택시에 소재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고덕변전소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현안 보고를 받은 뒤 현장을 시찰했다. 이후 회의실에서 한국전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반도체 전력 상황을 살펴봤고, 현장의 목소

리를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고덕변전소는 반도체 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전력 공급 문제를 풀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AI,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망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 없이 AI 혁명은 없다”며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 미래 산업을 키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삼훈 정책위의장도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전력 면에서 부국이나 다름없는 미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도 긴장하고 전력 수요 공급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미래먹거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 중이지만 현재 반도체 특별법이 조금 진통이 예상된다면 에너지 3법을 먼저 통과 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에너지 3법 중 그래도 여야가 가장 이견을 좁히고 국회를 통과할 채비를 마친 것이 국가기간전력망법”이라고 전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KB금융, 업계 첫 '순익 5조클럽'... 주주환원에 1.8조 쏟아

작년 당기순이익 5조782억 달성
증권·손보·카드 등 비은행이 견인
1조7600억 규모 주주환원 발표
돌봄·상생 등 사회적 가치 밸류업

KB금융그룹이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연간 순이익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섰다.

KB금융은 5일 인터넷·모바일 생중계를 통해 2024년 당기순이익이 5조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고 밝혔다.

◆ 사상 첫 '5조 클럽'... 비은행 이익 ↑

지난해 대규모 추가연계증권(ELS) 고객보상과 시장금리 하락 등 경영환경은 어려웠지만 증권과 카드, 보험 등 비은행 부문의 이익이 확대됐다.

비은행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KB증권 50.3%, KB손해보험 17.7%, KB국민카드 14.7%, KB라이프(개별기준) 15.1% 증가했다.

KB금융 관계자는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지속적인 이익기여도 확대가 그룹의 견조한 수익 창출력 개선을 이끌어



국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이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5일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국민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4대 금융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16조9194억원으로 지난 2023년 대비 13.03% 증가한 규모로 KB금융은 약 11% 증가한 5조660억원, 신한지주는 8% 증가한 4조8372억원, 하나금융지주 11% 증가한 3조8614억원, 우리금융지주 20% 증가한 3조1548억원으로 추산된다. /뉴시스

갔다"며 "앞으로도 저성장·금리하락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각 사업 부문별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위험가중 자산이익률(RoRWA) 중심의 질적 성장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4분기 당기순이익은 682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7.7% 감소했다. 희망퇴직비용 등 거액의 일회성 비용 인식과 환율 상승과 주가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및 파생·외환 관련 손익의 감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보험실적

축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순이자이익은 12조8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순이자마진 하락에도 금리인하 기대감에 대출 수요가 커졌고, 카드와 보험사 등 비은행 계열사들의 이자이익 기여도도 꾸준히 확대됐다.

순수수료이익은 3조8496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다. ELS 판매증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 등으로 은행과 부동산신탁의 신탁보수가 줄었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손익이 큰 폭 증가하고, IB부문의 증권업수입수수료가 확대됐다.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72%로 전년 대비 0.59%포인트(p) 개선됐으며, 영업이익경비율(CIR)도 40.7%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을 갱신했다.

작년 말 기준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51%, 16.41%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 적정성 유지했다.

◆ 올해 주주환원 1조7600억 '밸류업'
KB금융은 이날 자사주 매입·소각

5200억원을 포함한 1조76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발표했다. 앞서 내놓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2024년 말 CET1 비율 13.51% 중 13%를 초과하는 자본이다.

하반기에는 2025년 하반기 CET1 비율 13.50% 초과 자본도 추가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KB금융은 사회적 가치도 밸류업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 관계자는 "KB가 포용금융, 성장지원 금융, 사회 기여 금융 등 사회 분야에서 창출한 가치는 연간 약 2조3800억원 수준"이라며 "지난해 사회공헌 전략체계 개편을 완료한 만큼 올해에는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확대 노력을 지속하면서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소통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줬다. KB금융은 실적발표회에서 개인주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사전 접수된 개인주주 질문에 경영진이 직접 답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엘리트' 몸값 뚝 오른다... 송파구 아파트값 들쭉

'토허제' 해제 가능성에 집값 자극
업계, 이르면 내달에도 발표 예상
엘스 '국평' 한달새 1~1.5억 경총

"선호도가 낮은 아파트단지도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이다. 이사를 가려는 구매물만 있다."

최근 '잠실 엘스'를 포함한 잠실 3대 대장주로 불리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움)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가능성이 송파구 아파트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달 14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잠실을 비롯한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2020년 이후 장기간 토허제 규제 대상이었으며 규제 완화 시 투자 및 실거주 수요가 동시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잠실인근 공인중개업소 A씨는 "토허제 해제가 5월로 예정돼 있으나 시장에서는 빠르면 다음 달에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A씨는 "문의 전화도 많아지고 매물이 바로 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라인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엘스 '국평' 전용 84㎡는 최근 28억8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달 초에는 27억원 내외에서 거래되던 매물이 1억~1억5000만원 정도 오른 상태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로얄동이 아닌 매물은 26억원 초반에도 거래가 가능하고 귀땀했다. 토허제 해제 전에 거래한 사람들도 소급적용이 될지 미지수지만 발표 후에는 조건이 좋지 않은 물건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강남 접근성이 높은 송파구는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며 타 지역 대비 가격 변동성이 크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동향(1월 셋째 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이 4주 연속 보험세를 보인 가운데 송파구는 가장 큰 매매가 상승폭(0.04%→0.09%)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 가능성과 함께 재건축 기대감 등이 매수세를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신천동 '잠미1차' 전용면적 99㎡는 지난달 26억원에 거래돼 지난해 10월(24억9000만원) 대비 1억1000만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얼마 남지 않은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매물 잠금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늘었다"며 "토허제 해제 가능성에 이어 재건축 기대감까지 확산돼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현 기자 jim13@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월지급금 오른다

3월 신청자부터 월지급금 0.42% ↑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오는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요율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기대여명 증가 및 이자율 하락 등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신규 신청자의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소폭 증가(평균 0.42%)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 및 오는 28일까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고객은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관계없이 기존에 산정된 월지급금을 계속 지급받게 된다.

김경환 HF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주택연금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가입자변 확대 노력 등을 통해 고령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허창언 "보험 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보험개발원 원장)

초연결 시대 보험산업 플랫폼 도약
올해 '실손24' 2단계 시스템 속도

"보험 데이터를 자체 분석 목적에 맞게 쉽게 추출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보험데이터마트를 구축해 데이터 융합 환경을 조성하겠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사진)은 5일 '초연결 시대 보험산업의 플랫폼으로'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적 보험서비스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실손24'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초연결 시대 보험산업 플랫폼으로 거듭 나겠다는 계획이다.

허창언 원장은 "지난해는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등 시장환경 변화 속에서 보험개발원이 실손24,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초연결 시대의 초석을 마련한 시기"라며 "2025년은 보험개발원이 초연결 시대의 보험산업 '플랫폼'으로 거듭나 보험산업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주요 사업 추진 과제로 ▲플랫폼 서비스에 기반한 보험산업 미래 먹거리 발굴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술 융합을 통한 신상품 개발 지원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신시장 수요 창출 ▲신(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플랫폼 서비스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구축 및 운영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1단계 시스템 오픈에 이어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2단계 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추진한다.

지난 2월 4일까지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487곳으로 삼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형 병원들은 대부분 포함됐다. 오는 3월 말에는 보건소 3500여곳이 추가로 연계돼 총 4000여곳을 넘어서는 의료기관이 시스템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GS건설, 작년 신규수주 20조 육박 96% ↑

영업이익 2862억... 흑자 전환 성공
플랜트 사업본부 매출 41.7% 성장

GS건설이 지난해 신규수주 규모가 20조원 가까이 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5일 GS건설에 따르면 작년 영업이익이 2862억원으로 전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데 성공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12조8638억원이다.

미래의 매출 성장세를 가능케 하는 신규

수주는 전년 대비 95.5% 증가한 19조9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16조7400억원을 넘어서며 창사 이래 최대치를 다시 썼다.

사업본부별 매출을 살펴보면 건축주택사업본부가 지난해 9조5109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했고, 인프라사업 본부는 지난해 1조1535억원으로 4.5% 증가했다. 플랜트사업본부 매출은 4257억원으로 41.7% 성장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완성차업계, EV모델 가격 경쟁력 집중... 시장 선점 '방점'

현대차·기아 재고할인 등 혜택 강화 KGM '토레스 EVX' 3900만원 구매 볼보 'EX30' 세계 최저가 수준 출시 BYD '아토 3' 2000만원대 구매 전망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 정부의 전기차(EV) 지원 정책에 맞춰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완성차 업체들은 충전 인프라 구축 문제와 가격 부담 등으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며 친환경차 시장 선점에 집중하고 있다.

5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EV 모델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이 프로모션으로 전기차 9개 차종에 대해 기본 차량 가격 할인에 월별 재고 할인까지 더해 차종별로 300만~5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제네시스는 GV60 300만원, G80 전동화 모델 5% 가격 할인을 해준다. 서울에서 이 최대 구매 혜택을 적용할 경우 ▲아이오닉 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모델 5410만원→4438만원 ▲



현대차 아이오닉 6.



기아 EV9.



푸조 e-2008.

아이오닉 6 2WD 스탠다드 18인치 모델 4695만원→3781만원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모델 4142만원→3152만원으로 실제 구매가가 낮아진다.

기아도 'EV 패스타'를 통해 ▲니로 EV 200만원 ▲EV6 150만원 ▲EV9 250만원 ▲봉고 EV 350만원의 제조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난해 생산분에 대해선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차종별로 350만~500만원 혜택이 가능하다. 서울 기준으로 ▲EV6 2WD 19인치 롱레인지 트림 5060만원→4058만원 ▲EV9 2WD 19인치 에어 트림 7337만원→6560만원 ▲니로 EV

에어 트림 4855만원→3843만원 ▲봉고 EV 1톤 2WD 초장축 킹캡 스마트 셀렉션 트림 4315만원→2450만원으로 구입 가격이 낮아진다.

KG모빌리티(이하 KGM)도 전기차 가격 할인 대열에 합류한다. KGM은 전기 SUV 토레스 EVX에 75만원을 지원해 실구매가를 최저 3900만원대로 맞추고 택시 전용 모델인 토레스 EVX와 코란도 EV에는 각각 150만원, 100만원을 제공한다.

수입차 업계도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지난 3일 콤팩트 전기 SUV

EX30을 전 세계 최저가 수준인 4000만원 초반대(국고 및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적용 기준) 가격으로 한국 시장에 출시했다. 신차 효과와 최대 333만원 할인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초반 흥행 몰이에 나서기 위함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객들의 전기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한정 전기차 보조금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 오는 28일까지 지프 어벤처와 푸조 e-2008을 구매할 경우 각각의 국고 보조금 예상치인 212만원, 209만원 지원과 더불어 고객의 거주 지역에 따른 지

자체 보조금 예상치를 한 번에 모두 지원한다. 여기에 각 브랜드의 전기차 프로모션과 블랙박스 및 하이패스 기기 장착 혜택까지 더하면 지프 어벤처는 최소 539만원, 푸조 e-2008은 최소 786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초 국내 시장에 진출한 중국 전기차 업체 BYD도 소형 전기 SUV 아토 3의 판매가격을 중국 현지보다 저렴하게 책정했다. 아토 3의 판매가격은 3150만~3330만원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적용 시 20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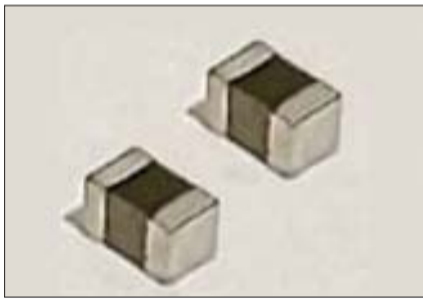
삼성전기, 초소형 고전압 MLCC 개발

업계 최고수준 10V 고전압 구현 고성능 전장용 시장 본격 진출

삼성전기가 자율주행의 핵심 장치인 라이다(LiDAR) 시스템에 탑재되는 MLCC(적층세라믹콘덴서)를 개발하고, 고성능 전장용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기는 자동차 자율주행을 위한 초소형 고전압 MLCC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삼성전기가 개발한 MLCC는 1005크기(가로 1.0mm, 세로 0.5mm)의 2.2uF(마이크로패럿) 용량, 10V(볼트) 고전압을 가진 제품이다. 고전압을 기존 6.3V 대비 약 60% 높여 동일 규격에서 세계 최초로 전장제품 필수 신뢰성 규격인 AEC-Q200인증을 받았다. 따라서 차량 내 ADAS, 바디(Body), 새시(Chassis),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와 같은 다른 응용처에도 사용이



자율주행차 라이다용 MLCC /삼성전기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품은 자율주행의 핵심 장치 중 하나인 라이다 시스템에 사용된다.

라이다는 차량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정밀한 거리 측정을 통해 안전한 주행을 지원한다.

이번에 개발한 기종은 동일 크기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고전압을 구현한 제품이다. 삼성전기는 첨가제를 독자 개발하고, 유전체 내에 비어있는 공간을 최소화하는 신공법으로 높은 전압에서

도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했다.

삼성전기는 초소형, 초고용량 MLCC 부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온·고압·고신뢰성 등 전장 제품의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 및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MLCC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전장 MLCC 시장은 2024년 4조 5000억원에서 2028년에는 10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기 컴포넌트솔루션 사업부장 최재열 부사장은 "자동차의 전장화로 고성능·고신뢰성 MLCC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삼성전기는 MLCC의 재료·설비·공법 등 요소기술 확보를 통해 차별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 시장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AI 구독클럽으로 PC·태블릿 이용하세요"

삼성전자 구독가능 품목 확대

삼성전자는 'AI 구독클럽'의 구독 가능 품목을 PC와 태블릿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AI 구독클럽은 삼성전자 제품을 장기 할부로 부담없이 구매하고, 주기적으로 전문가에게 관리 받을 수 있게 한 서비스다. 가전과 스마트폰뿐 아니라 IT 제품까지 선택이 가능해졌다.

PC, 태블릿 제품의 요금제는 제품과 케어서비스를 결합한 'AI 올인원', 제품에 소비자가 원하는 케어서비스만 선택이 가능한 'AI 스마트'로 나뉜다.

PC 구독 서비스의 경우 AI 올인원은 48개월 상품으로, AI 스마트 요금제는 24개월 상품으로 운영한다. AI 올인원의 경우 구독 대상 PC는 40 TOPS 이상을 충족하는 코파일럿+ 제품이다. TO

PS는 1초당 1조번의 연산 능력을 의미한다.

두 요금제 모두 구독 기간 내 파손보상·무상수리 서비스와 배터리 교체 또는 배터리·키보드 동시 교체 서비스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AI 올인원 요금제 고객은 36개월 차에, AI 스마트 요금제 고객은 구독기간 종료 시점인 24개월 차에 1회 받을 수 있다.

태블릿 구독 서비스의 AI 올인원 요금제는 36개월 상품으로, AI 스마트 요금제는 24개월 상품으로 운영한다. ▲갤럭시 탭 S10 울트라 ▲갤럭시 탭 S10 + ▲갤럭시 탭 S9 등 28개 모델 가입이 가능하다. AI 스마트 요금제는 상기 모델에 더해 ▲갤럭시 탭 S9 FE+ ▲갤럭시 탭 S9 FE까지 총 60개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현대차·기아, 美 '아이오나' 초고속 충전 서비스

2030년까지 3만기 충전기 설치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2030년까지 3만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초고속 충전 서비스에 나선다.

현대차·기아가 참여하는 북미 지역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서비스 연합체 '아이오나'는 4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본사에서 초고속 충전 서비스 출시 행사를 열었다.

아이오나에는 현대차·기아와 함께 BMW, 제너럴모터스(GM), 혼다,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 토요타 등 8



아이오나 에이펙스 리차저리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9를 충전하는 모습.

개 완성차 업체가 참여한다.

아이오나는 이번 행사에서 본사인

'에이펙스 리차저리'를 비롯한 전기차 충전소 4곳과 전기차 충전 기술을 연구하는 고객 경험 연구소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아이오나는 전기차를 이용해 미국에서 자동차 여행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이오나는 올해 미국 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1000기 구축하고, 2030년까지 3만기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아이오나는 지난해 2월 공식 출범 이후 1년 만에 100곳 이상의 충전소 부지 계약을 완료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세탁건조기 라인업·서비스 확대

트루스팀 적용... 구독 케어서비스도

LG전자가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세탁건조기 제품 신규 라인업과 새로운 구독 케어서비스를 선보였다.

LG전자는 최근 '트루스팀(TrueSteam)'을 적용한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를 출시했다. 세탁과 건조 용량은 각각 25kg와 15kg다.

트루스팀은 물을 100℃로 끓여 미세한 스팀 입자를 만드는 기술로, 건조시 빨랫감에 뿌려져 의무살균에 효과적이다. 공인시험인증기관 실험 결과 황색포도상구균·녹농균·폐렴간균과 같은

유해세균을 99.99%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한 스팀으로 건조된 옷감의 구김도 줄여준다.

전문가의 관리를 받으며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케어서비스도 추가됐다.

워시콤보 스팀을 구독하면서 6개월 또는 12개월 중 원하는 방문 주기를 선택하면 된다. 구독 기간 내에는 사용하다 생긴 부품 이상에 대해 무상 AS도 지원한다.

워시콤보 스팀의 출하가는 454만원으로 6년 계약 및 케어 매니저의 12개월 주기 방문 기준 월 구독료는 월 8만 5900원이다.

/구남영 기자

정부, AI 인프라에 3조 투입… 업계선 “실현 가능성 의문”

세계 10위 IDC의 10배 구축 목표 GPU 3만장 확보, 예산·공급난 관련 데이터센터 구축 필수, 부지 확보 난제 업계 “취지 공감, 현실적 대책 필요” 정부 “AI 반도체 국산화 경쟁력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인프라 확충에만 1조원 이상을 사용하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공수표를 던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대 2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또 이달 말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하는 ‘AI 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국가 AI 컴퓨팅 사업은 엔비디아 등 외국산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입한 후 점진적으로 국산 AI 반도체 비율을 늘려 최종 1엑사플롭스(EF, 1초당 100경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브리핑에서 유 장관은 올해 말까지 1만 5000장에 달하는 GPU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력의 연산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GPU 3만장을 확보하기로 했으나 늦어도 2027년 초까지 3만장을 채우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핵심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브리핑에서 “올해는 1만5000장 정도는 구비가 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원래 2030년까지 그렇게 국가 재원을 쓰기로 했으니 그걸 앞당기는 것 뿐”이라며 “AI 분야 추경이 이뤄진다면 AI GPU 구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예산 677조원 중 1조원 가량을 AI에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IT·반도체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예산 문제부터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공간 및 전력 확보 문제까지 무엇하나 단기간 내에 해결 될 가능성이 없는데 공수표를 던진다는 주장이다.

현재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엔비디아의 H100은 약 4만달러 이상(약 5400만원)에 달하고 구매할 GPU를 수령하는 데에는 1년 가량 소요된다. 단순 계산으로 1만5000장을 구입하는 데에는 8100억원, 3만장에는 1조 6200억원이 든다. AMD, 인텔 등의 GPU를 구입해도 3만장 구입에 1조원 이상이 든다.

여기에 더해 구입을 할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연내 수령이 가능한지도 문제다. 현재 엔비디아의 GPU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애플 등 경쟁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는데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질 못해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이터센터 설립에 따른 문제들 또한 해결되지 않았다. 구입한 GPU를 AI

개발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규모에 따라 수천억 원 단위의 비용이 필요하다. 확보하겠다고 밝힌 연산능력 또한 초대형 데이터센터의 10배를 넘는다.

카카오가 경기도 안산에 설립한 ‘안산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4만7378㎡ 하이퍼스케일 규모다. 총 12만대의 서버를 보관할 수 있고, 저장 가능한 데이터량은 6엑사바이트다. 해당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데 든 비용은 4249억원에 달한다.

NHN클라우드가 2023년 11월 개소한 ‘광주 AI 데이터센터’는 전세계 10위권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로 컴퓨팅 연산능력은 88.5페타플롭스(PF), 저장용량 107페타바이트다. 정부가 설명한 1엑사플롭스는 88.5페타플롭스의 11.3배에 달하는 연산능력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중 어림잡아 인프라 구축에만 3조원 이상을 사용하겠다는 포부인데, 실제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만은 실현 가능성은 극도로 낮아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삼성, 2년 만에 반도체 1위 탈환… AI·메모리로 인텔 제치

AI·데이터센터 수요 급증 메모리 반등에 실적 개선 HBM·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삼성전자가 2년 만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 1위를 되찾았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과 AI·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힘입어 인텔을 제치고 다시 선두에 올랐다.

5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발표한 ‘2024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예비조사’에 따르면 2024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665억달러(약 96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2.5% 성장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이 실적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가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반면, 지난해 1위였던 인텔은 AI PC 및 신형 칩셋 출시에도 불구하고 x86 비즈니스 성장 둔화로 2위로 밀려났다.

지난해 반도체 산업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분야가 시장확대를 견인했다.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18.1% 성장하며 626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데이터센터용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인공지능(AI) 프로세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센터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1120억 달러에 달했다.

이처럼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순위도 변동했다. 엔비디아는 AI 칩 수요 증가에 힘입어 두 계단 상승한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엔비디아의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460억달러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도 AI 서버용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선점하며 86% 성장한 42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 4위

에 올랐다. 이는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성장률로,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의 수익성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71.8% 성장하며 전체 반도체 시장의 25.2%를 차지했다. 특히 D램과 낸드(NAND) 매출이 각각 75% 이상 증가하며 시장 성장세를 이끌었다.

HBM 시장 성장도 두드러졌다. AI 반도체 채택이 확대되면서 2024년 전체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로 증가했다.

가트너는 2025년 HBM 비중이 19.2%까지 확대되며, 매출이 66.3% 성장한 19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혜민 기자 hyem@



KT 직원이 KT와 롯데렌탈의 장기렌터카 제휴 할인 혜택을 소개하고 있다. /KT

KT 창업·운영 부담 완화 렌터카 할인 프로모션

KT가 롯데렌탈과 손잡고 자사 소상공인 고객을 대상으로 장기렌터카 제휴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KT 소상공인 고객은 레이부터 GV80, 카니발까지 롯데렌터카 전 차종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롯데렌탈은 전국 22개 지점과 26만대 차량을 운영한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차 구매 효과와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이 동시에 주어진다. 기본 할인율 3.5%며 선택순 50대 한정으로 1% 추가 할인이 적용돼 최대 4.5%(약 312만원 절감) 혜택을 받는다.

소상공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장기렌터카의 월 대여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를 장기렌트하면 월 대여료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이번 할인 혜택은 KT 인터넷, 으라차차 패키지, 하이오더, 인공지능(AI) 서빙로봇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대상이다. KT 공식 홈페이지 내 사장님 혜택존에서 사업자번호를 인증하면 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중고폰 속 고객 데이터 148억장 분량 삭제”

LGU+, 개인정보 유출 원천 차단

LG유플러스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중고폰 진단센터’를 통해 A4 용지 148억장 분량의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고객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중고폰 시장 규모는 2021년 682만대, 2022년 708만대, 2023년 778만대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객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50.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LG유

플러스는 지난해 5월부터 우리동네 중고폰 진단센터(U+진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U+진단센터는 글로벌 1위 데이터 삭제 진단 서비스 업체인 블랑코 테크놀로지그룹의 솔루션을 활용해 중고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삭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U+진단센터에서 약 9개월 동안 삭제한 고객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데이터는 207.5TB에 달한다. A4 용지 한 장이 약 15KB인 점을 고려하면 207.5TB는 약 148억5342만 장 분량이다.

LG유플러스는 U+진단센터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된 중고폰들이 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7년 만에 이사회 복귀

내달 주주총회서 사내이사 선임 상정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사진)가 7년만에 네이버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한다.

5일 네이버 이사회는 이번주 중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사내이사 복귀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이사회 의장을 맡을 전망이다.

이번 이 창업자의 복귀는 중국발 딥시크(DeepSeek) 쇼크 이후 네이버의 충격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딥시크는 개발과 학습에 든 비용과 시간이 빅테크 기업의 주요 인



공지능(AI) 대비 1/10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유학 경험 없는 중국 내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인재들이 주축이 됐다.

딥시크 이후 AI 개발은 천문학적 비용과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인식에서 알고리즘 효율화의 기술적 문제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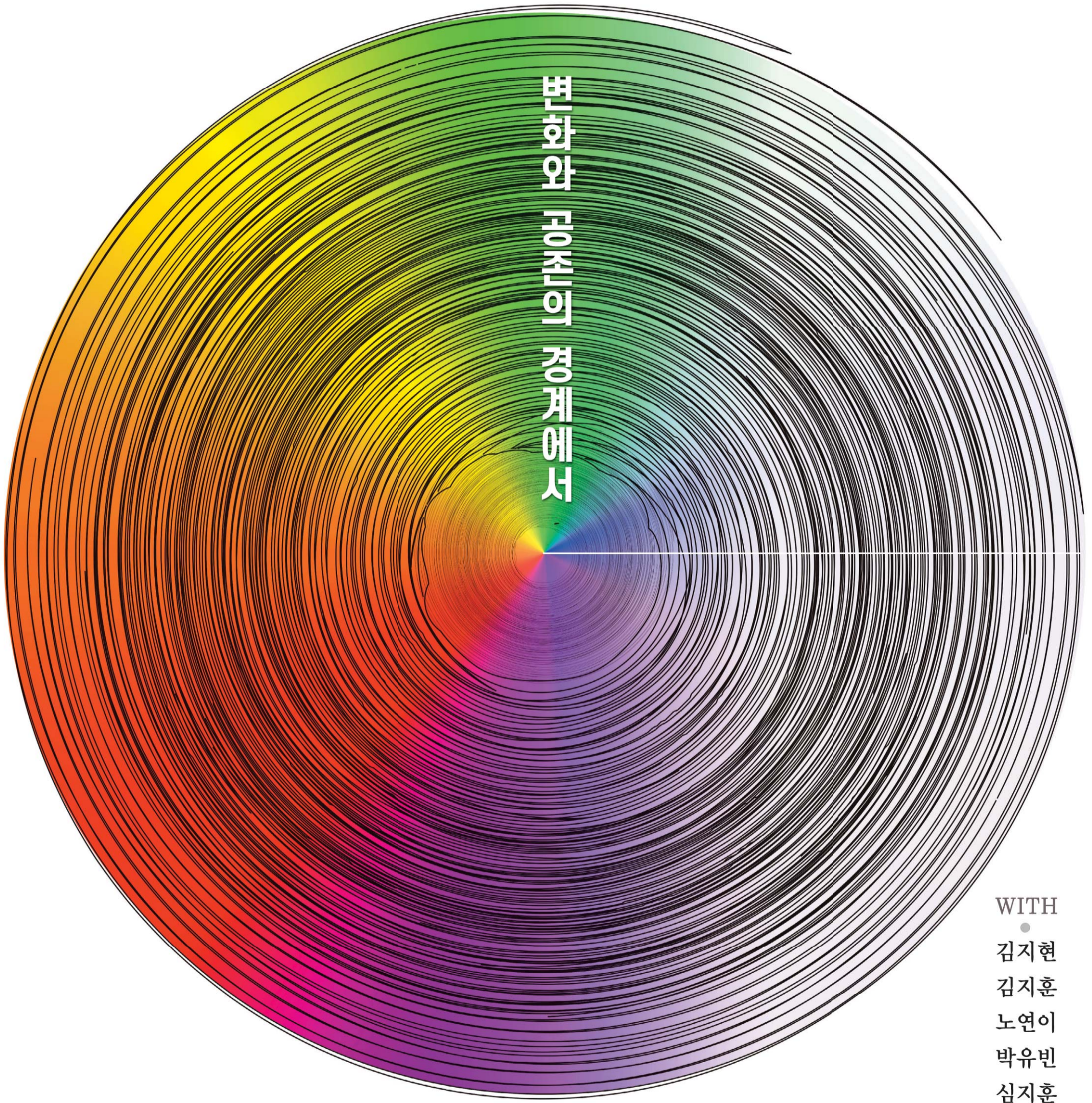
네이버는 현재 자체 개발 대규모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갖고 있다. 2010년대부터 개발에 나서 현재까지 R&D에 1조원의 금액을 쏟아부었다.

/김서현 기자

Gallery **오름**
기획초대전

ESTUARY

에스추어리



변화와 고정성의 경계에서

WITH
● 김지현
김지훈
노연이
박유빈
심지훈
오승경
조성훈

주최 Gallery **오름** 후원 **오름비** 동성제약 신안개발
• 갤러리아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T. 02.6743.3370 • 관람시간 11:00-19:00 *일·월요일 휴관

2025. 2. 6 Thu - 2. 15 Sat

개인 '카카오·삼전', 外人 '네이버·SK하이닉스' 집중매수

개인, 삼성전자 1.5兆 순매수
딥시크 수혜주로 카카오 선택

外人, 실적 우위 네이버 사들여
수익률 측면서 유리할 전망

최근 투자 주체별로 업종별 선호 종목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카카오와 삼성전자를 선택한 반면, 외국인은 네이버와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하며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4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1조5158억 원을 순매수했다. 딥시크(DeepSeek) 수혜주로 꼽히는 카카오는 1973억원 사들이면서 5번째로 많이 담았다. 딥시크는 '가성비'로 평가되는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으로 등장과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에 충격을 불러왔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은 기술력만으로 고성능 AI 모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개인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엇갈린 선택을 표현한 이미지.

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면 서 딥시크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카카오가 아닌 네이버를 선택했다. 네이버는 실적 등이 카카오보다 우위로 평가되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2416억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네이버를 2979억원 순매도했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가 지난해 매출액 10조원을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안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10조6788억원으로 예상됐다. 4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액 2조8278억원, 영업이익 5371억원을 기록해 시장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각각 전

년 대비 11.5%, 32.4%씩 오른 수치다.

반면, 카카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1조921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도 1120억원으로 30%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시장예상치를 하회하는 성과다.

이제는 대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2024년에도 다양한 신규 서비스 및 개편을 시도한 바 있지만, 쇼핑 탭의 개편에도 유저들의 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으며 채팅창에 선보인 AI 서비스 역시 유저 반응은 냉소적이었다"며 "향후 카카오의 주가 향방은 업황 회복보다는 신규 개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종목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의 상반된 투심이 유지되고 있다. 개인은 올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지만, SK하이닉스는 1조375억원을 팔아 치우면서 가장 많이 매도했다. 하지만 외국인은 이와 정반대로 SK하이닉스를 1조2690억원 순매수하고, 삼성전자

를 1조9476억원 순매도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들어 지난 4일까지 카카오의 주가는 7.06% 올랐으나, 네이버는 9.85%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도체주 역시 SK하이닉스가 9.89% 반등할 동안 삼성전자는 오히려 0.93%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이날도 삼성전자는 0.38% 소폭 상승한 반면, SK하이닉스는 4.03% 강세를 보이며 희비가 갈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시장의 기대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목표주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기도 했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내린 증권사는 총 9곳이며, 이 중 8곳이 7만 5000원 이하를 제시했다. 김형태 신한증권 연구원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단기 실적 우려가 재차 부각될 것"이라며 "낮아진 눈높이를 하회한 실적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1분기까지 연장됐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유석 "밸류업·주니어 ISA로 장기 투자문화 정착"

(금융투자협회 회장)

공모펀드 상장, 2분기 내 추진 예정
제도 지원으로 디딤펀드 활성화 박차
증권사 규제 완화 통해 경쟁력 확보
토큰증권 제도화·가상자산 ETF 검토

"올해 금융투자업계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자본시장 혁신과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재도약해야 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사진)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향후 핵심 과제로 ▲자본시장 밸류업 ▲자본시장 혁신과 인프라 개선 ▲국민 자산 형성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금융투자산업 지속 성장 모멘텀 확보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등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밸류업 정책이 단순한 주가 부양책이 아니라 국민 자산 증대를 위한 종합 전략"이라며 기업 가치 제고



와 주주환원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당 세제 합리화와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통해 장기 투자문화를 정착시켜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협회는 현재 논의 중인 ISA 납입·비과세 한도의 상향과 새로운 유형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주니어 ISA 도입을 추진해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급성장으로 위축된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모펀드 상장을 2분기 내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 회장은 "공모펀드 상장거래를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원함에 따라 펀드 투자 패러다임의 새로

운 변화가 시작됐다"면서 "공모 펀드 또한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매매하게 된다"며 기존 판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투자자 중심의 직접투자 시장으로 급속히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회장은 자신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디딤펀드' 제도 지원 방안을 언급하면서 디딤펀드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활용 강화 ▲은행 판매 확대 ▲포트폴리오 옵션 개선 등의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 회장은 "디딤펀드는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디딤펀드는 4개월 동안 평균 3.5%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일부 펀드는 7%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도 강조했다. 그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인가, 법인지급결제 허용, 외환업무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금융투자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토큰증권 제도화와 가상자산 ETF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 회장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약 100조 원이며, 최근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이더리움을 기초로 한 ETF가 상장돼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 가상자산 ETF는 기존 주식·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원관희 기자 wkh@

키움증권 3년 만에 '1兆 클럽' 복귀



키움증권이 3년 만에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복귀했다. 키움증권은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1조982억원으로 전년보다 94.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

다고 5일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은 11조2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8% 증가했다. 순이익은 8349억원으로 89.43% 늘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802억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손실 2770억원)와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이 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3조6416억원과 1463억원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약정이 전 분기 대비 32.6% 증가하며 관련 수수료 수익이 국내 주식 수수료 수익을 상회했다"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연금계좌 배당소득 이중과세 논란... "빠른 정책결정 필요"

올해부터 '선 환급, 후 원천징수' 폐지
기재부, 일부 환급 등 보완책 검토 중
대안으로 배당·합성형 커버드콜 ETF

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금소득과 함께 과세되자 '이중과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정책적인 결정을 빨리해야 투자자들의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업계 차원에서는 정부 정책 조정 방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금소득과 함께 과세 대상

이 됐다. 기존에는 해외 배당소득세(예: 미국 15%)가 원천징수되더라도 국세청이 이를 환급해 국내 세율(14%)만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선 환급, 후 원천징수' 절차가 폐지되면서,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후 연금 수령 시 다시 연금소득세(3~5%)를 내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는 사실상 세금을 두 번 내는 이중과세로,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협회 및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 측은 "연금소득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관련 제도 개편은 올해 중 논의

해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법변경이 연금계좌를 활용한 해외 ETF 투자 확대 흐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이중과세가 금융투자 회사들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연금소득세 환급이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고 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당소득세는 즉각 과세되지만, 연금소득세 환급은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인 과세 이연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월배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올해 1월 배당금 수령부터 직접적인 세금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 금융투자계 관계자는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적극 활용하라고 장려한 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된 정책 운용"이라며 "빠른 정책 결정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고민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한테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퇴직연금 및 ISA 계좌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문제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기재부와 논의를 지속하며 투자자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세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고려할 대안으로 국내 배당 ETF와 합성형 커버드콜 ETF를 추천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신한자산운용-과기부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신한자산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자금을 출자한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3개 은행과 기금(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신한자산운용, 연구개발 자금 관리 전담기관인 한국연구재단 등이 함께 참여했다.

과학기술혁신펀드는 시중은행 자금으로 조성된 과학분야 특화 펀드로 국내 기술사업화 기업,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신한자산운용은 연구소 기업, 공공기술 이전 기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개발 혁신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하은 기자

전력기기 3사, 美 투자확대 자신... “中 딥시크, 걸림돌 아냐”

中 딥시크에 ‘전력소비 감소’ 우려
업계, 우려 과도... 큰변화 없을 것
되레 美 AI기술 투자 촉진 가능성



지난 7일 HD현대일렉트릭이 ‘HD현대일렉트릭 울산 변압기 스마트 공장 투어’를 실시했다. /HD현대일렉트릭

중국딥시크사의 오픈소스 모델이 적은 자원으로 고성능 인공지능(AI)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전력 소비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를 과도한 우려라고 꼬집는 분위기다. 비용 효율적인 AI 모델이 등장하더라도 AI 연산 수요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력 소비의 구조적 증가세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AI 개발 스타트업 딥시크가 지난 1월 20일 ‘딥시크-R1’을 선보이며 최소한의 자원으로 높은 성능을 내는 AI 모델을 구현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전력 소비 감소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는 전력 수요 급증을 예상해 증설을 확대하고 있는데, 전력 수요가 기대보다 줄어들 경우 설비 투자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서다.

HD현대일렉 내년 초 4000억 투입
美·울산 변압기 생산량 30% 확대

LS일렉 테트라 테크와 업무협약
미국 비롯 글로벌 전력시장 공략

효성중공업 미국 테네시 멤피스에
초고압 변압기공장 시험라인 추가

그럼에도 전력기기 업체는 AI 개발 효율성이 개선되더라도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전력기기 3사(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효성중공업)는 지난해 나란히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HD현대일렉트릭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69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12% 뛰었으며 LS일렉트릭은 지난해 영업이익 3897억원

을 기록해 전년 대비 19.96%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효성중공업 또한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이 3652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호실적의 배경에는 세계 전력 인프라 신규·교체 수요가 급증한 점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가 예상되면서 업계의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력망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력기기 업체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수요 지속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의 전력기기 수요를 잡는데 지속 집중할 방침이다. 2026년 초까지 4000억원을 투입해 미국 앨라배마와 울산 변압기 공장 생산량을 30% 끌어올린다. 울산공장을 증설해 초고압 변압기 생산량을 연 300개에서 36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앨라배마 공장 생산 능력 또한 연 100개에서 최대 150개로 증설할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기업 테트라 테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미국을 비롯

해 글로벌 전력 시장 동반 공략에 나선다. 양사는 전력솔루션과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내 전력·에너지 분야에서 보유한 네트워크와 인지도를 활용해 시장 맞춤형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안해 사업 확대를 추진할 전략이다.

효성중공업도 미국 시장 수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중이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테네시 멤피스에 초고압 변압기 공장 시험 라인을 추가하고 시험·생산설비를 확대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딥시크의 부상 이 미국의 AI 기술 개발 투자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시장의 확장세도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 기술의 발전이 미국의 AI 투자 확대를 견인하면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로서는 시장 변화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부족한 만큼 경영 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업계 전반이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처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텍스트 기반→멀티모달 환경 진화

‘말하는 AI’ 시장규모 5년내 56조 성장

프랑스 큐타이, 음성 AI ‘모시’ 공개
인터넷연결 없이 0.2초내 음성 생성
구글·오픈AI, 작년 음성강화 AI 출시
네이버·카카오도 AI 역량강화 나서



GPT로 생성한 ‘을 담은 AI 이미지.

인공지능(AI) 기술이 텍스트 기반에서 멀티모달 환경으로 진화하면서 음성 AI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음성 AI 기술을 고도화하며 스마트폰을 넘어 차량, 가전, 미디어 플랫폼 등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멀티모달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을 포함한 다양한 AI를 연동해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5일 시장조사기관 모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음성 AI 시장 규모는 2024년 20조원에서 2029년 56조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가트너 측은 “음성 인식과 자연스러운 대화 기능이 결합하면서 사용자 경험이 크게 향상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픈소스 vs 폐쇄형’...음성 AI 패권 경쟁 ‘본격화’

음성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술 패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AI 업계는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나뉜다.

하나는 오픈소스 AI 진영이다. 메타, 모질라, 큐타이, 코키 등은 AI 음성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기술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메타는 4000개 이상의 언어를 인식·생성할 수 있는 ‘MMS’를 통해 오픈소스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 MMS는 학

습용 꼬리표(라벨) 없이도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다.

프랑스의 오픈AI라 불리는 AI 연구소 ‘큐타이’는 최근 ‘모시(Moshi)’라는 음성 AI를 공개했다. 모시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작동하며, 0.2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음성을 생성한다.

반면 오픈AI, 구글,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폐쇄형 모델을 유지하며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글은 멀티모달 기능을 강화한 음성 AI ‘제미니 2.0’을 지난해 12월 출시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했으며, 10가지 목소리를 제공해 톤과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

오픈AI도 한국어와 일본어를 포함한 50개 언어의 사용을 개선한 챗GPT ‘음성 모드’를 지난해 12월 출시했다. 음성 발화 속도 조절과 화자의 감정 인식 기능을 추가해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구현한다.

애플도 음성 AI ‘시리(Siri)’에 챗GPT를 통합할 계획이다. 베타 테스트를 진행해 일부 기능을 2025년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홈팟, 아이폰, 맥OS

전반에서 더욱 자연스럽게 정교한 음성 인터페이스가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소스 모델은 기술 접근성을 높여 빠르게 확산되지만, 폐쇄형 모델은 강력한 성능과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며 “각각의 강점이 있어 기업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도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더욱 확장시키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딥시크는 올해 초 AI 추론 모델 ‘R1’과 함께 음성 AI ‘딥시크보이스’를 공개했다. 텍스트와 음성을 동시에 처리하며,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작동할 수 있어 스마트폰, 차량 내장 AI, 스마트홈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AI 역량 강화 위해 분주

국내 기업들도 음성 AI 시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네이버는 AI 챗봇 ‘클로바X’에 정보 검색 도우미 기능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는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AI 음성 비서 ‘카나나’를 개발 중이다. 카나나는 개인용 AI ‘나나’와 그룹채팅용 AI ‘카나’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나나는 일대일 대화에 참여하고 그룹 대화 내용을 기억해 개인화된 응답을 제공한다. 카나는 그룹 채팅에 특화되어 퀴즈 생성, 답변 채점, 요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카카오는 ‘카카오 아이(i)’ 음성 비서는 현재 카카오·소플·뱅크 서비스와 연동하고 있다.

/이해민 기자 hyem@

서부발전, 혁신 아이디어 10건 개발 추진

공모전 수상작 발전소운영에 적용

한국서부발전은 회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전소 운영혁신을 위한 ‘스마트기술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건에 대한 개발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지난 3주간 설비 신뢰도 향상, 스마트 점검 구현, 업무 효율성 증대, 신사업모델 창출 등 5개 분야를 주제로 공모한 결과 50건의 제안을 받았고, 사내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6건 등 총 1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데이터 기반 동적 공정

모델 생성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twin(가상모형) 환경구축’을 제안한 태안발전본부 이진형 차장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발전설비 누설점검용 자율주행 로봇 도입’을 제안한 군산발전본부 강호민 사원 등이 받았고, ‘빅데이터 기반 풍력발전소 출력예측 시스템 개발’을 제안한 태안발전본부 이정민 과장 등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부발전은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제안을 발전소 운영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장단기 과제로 구분한 뒤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설비 신뢰도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 관련 신기술은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신산업 분야 청년 스타트업 전폭지원”

최 대행, 청년들과 오찬간담회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층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국가 간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청년은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3대 게임체인저 등 신기술·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들과 융합해 향후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 청년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 청년 대표들이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개발한 수요자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가 전시, 소개됐다.

청년 대표들은 신산업 발전 공통 과제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 추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문적인 인력 양성 확대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꼽았다. 또 신기술의 신속한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요구했다.

정부는 조만간 AI 핵심인재 양성·확보 방안, AI 컴퓨팅 인프라 발전 전략, AI 기반 바이오 혁신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기술 국제 공동연구 ‘속도’ 정부, 2088억 투입해 확대 지원

산업부, 글로벌 기술협력 가속
국제협력 예산 전년비 25.9% ↑
글로벌 기술개발 지원 942억 배정
첨단산업 해외 협력거점 확대 추진
19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예정

정부가 올해 산업기술 국제 공동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6일 공고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보유하지 않은 기술을 해외 기관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기술개발 소요 시간과 비용을 감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사업규모는 전년(1658억원) 대비 25.9% 증가한 2088억원으로 ‘국제공동기술개발(942억원)’,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1052억원)’, ‘글로벌산업기술연계(35억원)’, ‘국제협력기반구축(49억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와 외국정부 간 합의를 기반으로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딩형 기술개발’과 유레카, 유로스타 등 다국간 협력 플랫폼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다자 공동펀딩형 기술개발’ 등 전략기술형 연구개발로 추진된다.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은 첨단산업분야 세계 최고 연구역량을 보유한 해외 연구기관에 협력거점을 설

치하고, 우리 기업과의 중장기·중대형 공동 연구개발(최대 5년, 총 100억원 이하)을 통해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 내재화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열리고, 통합 공고 상세 내용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고용부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설비 보강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설비, 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건설업, 조선업, 폐기물 처리업 등 온열질환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된다.

우선, 폭염 작업 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사업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이동식 에어컨·산업용 선풍기 지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한도 2000만원

물류·창고업 및 위생·폐기물처리업 사업장의 경우, 건물 구조상 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 작업장내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3000만원 한도로 70%(100인 미만 사업장은 50%)까지 지원한다.

폭염 작업이 예상되는 사업장에는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온습도계와,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한 응급키트 등 기본 예방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건설업 포함)은 내달 7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세종=김대환 기자

배기가스 폐수열회수 열교환기 설비	배기가스 폐열회수 열전발전 설비	전자식 자동제어 스팀트랩	텐타공정 배기환 제어	저전력 컴프레서· 모터	노후 배관, 보온설비 교체	전력량계	스팀·LNG 유량계	LCA S/W 등
에너지 재활용		에너지 효율 개선		노후설비교체		데이터수집		관리·분석
탄소 절감				탄소 발생량 추적				

주요 지원설비.

/산업부

노후설비 바꾸면 ‘최대 1억’ 섬유업계 저탄소 전환 속도

산업부, 온실가스 8932톤 감축 목표
섬유소재공정저탄소화기반조성 공고
중소·중견기업 70%, 대기업 50%

탄소 배출이 많은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섬유기업에 정부가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전환자금을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섬유업계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2025년도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 참여기업을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섬유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과 함께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 원단 제조와 염색 과정에서 전체 공정의 절반 이상의 탄소가 배출된다.

특히, 국내 섬유업계는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이 88.6%로 높아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023년부터 저전력모터, 폐수 열교환기 등 저탄소설비의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또 글로벌 섬유업계의 탄소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력량계, 유량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섬유제품에 대해 2027년부터 제품의 공급망 전 과정의 탄소 배출 데이터를 담은 디지털 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섬유·패션 바이어들도 공급망 기업에 대한 탄소 산정·감축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70%, 대기업은 50%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 선정된 업체는 탄소감축 전문가 컨설팅(자문)을 받을 수 있고, 탄소감축효과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감축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8932톤 저감한다는 목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섬유수출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 적극 추진”

농식품부,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

정부가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후계농 육성자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송 장관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후계농 육성자금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소진 대응 경과를 설명했다.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은 영농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및 사업개선 방향에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계농 자금 및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송 장관을 비롯해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등 관계 부서와 청년농업인 11명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농업SOC 예산 75% 상반기 집행

지난해 상반기보다 8%p 늘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 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예산은 1조 4541억 원으로, 올해 총 SOC 예산(1조 9428억 원)의 74.8%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의 집행률 67%보다 8%포인트(p)가량 늘어난 규모다.

농식품부는 농촌용수개발 1767억 원, 배수개선 3639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713억 원 등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영농, 재해예방 등의 사업 효과도 조기에 볼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다.

상습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개발은 56개 지구(준공 5, 계속 46, 신규 5)에 2357억 원,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은 285개 지구(준공

37, 계속 188, 신규 60)에 4852억 원을 집행한다. 또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돼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는 645개 지구(준공 170, 계속 295, 신규 180)에 7617억 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566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논에 콩과 시설하우스 등 타 작물의 재배가 집단화된 47지구 4614헥타르(ha)를 대상으로 설계빈도가 30년 이상(시설하우스 밀집지역의 경우 50년 이상)으로 상향된 배수시설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해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각 시·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예산을 배정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살펴 상반기 조기 집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환경부, 올해 안전성 조사 대폭 확대

환경부는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제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 등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많았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 중 문신용 염료가 38개로 가장 많았고, 세정제(8개), 미용접착제(6개) 등이 뒤를 이었다. 표시 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 중에서는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의 비중이 높았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에 공개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정보를 등록해 위반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불법 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에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울산시, 전문가 120여명과 친환경 수소트램 운영방안 모색

친환경 수소트램 기술 학술 토론회 정책·운영·신호 분야 등 논의 한국기술사회와 협력 유지 박차

울산시는 5일 '2025년 친환경 울산 수소트램 기술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울산 도시발전과 수소트램이라는 정책·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 토론회는 울산시와 한국기술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 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회 등이 후원하고, 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한국기술사회 장덕배 회장 및 임원, 대한교통학회 이선하 명예회장, 한국교통대학교 김현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와 울산시 기술직 공무원을 포함한 12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 토론회는 울산시 친환경 수소트램과 관련된 정책, 운영, 신호분야에 대한 연구 주제 발표와 각 분야 전



울산시청.

/울산시

문가 토론자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정책 분야는 '울산 도시발전과 트램'이라는 주제로 울산연구원의 정현욱 박사 ▲운영 분야는 '트램운영의 효율화 사례와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교통대학교 김현 교수 ▲신호 분야는 '한국형 트램신호체계의 개발 및 사업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에이알텍 이수환 부사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전문가 토론자 토론에는 김재권 아시아친환경자원협회 회장, 이선하 공주대 교수, 황종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한상중 부산기술사회 회장, 김가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김규관 울산시 트램교통과장이 참석해 정책 제안을 했다.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은 "울산 수소트램 운영방안과 기술혁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

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과학 기술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가 참여해 울산시와 한국기술사회가 국내 트램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학술 토론회는 울산 친환경 수소트램과 관련한 기술 소개 및 공감대를 위해 한국기술사회와 공동으로 학술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친환경 수소트램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연구와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될 이번 학술 토론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한층 진보한 기술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울산시와 한국기술사회가 체결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 및 주요 사업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의 하나로 추진됐다.

울산시와 한국기술사회는 이번 학술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울산시 현안 사업에 대해 꾸준히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 첫 최고액 탄생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기부한도가 올해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해남군 첫 최고액 기탁자가 나왔다.

주인공은 ㈜이레가축약품 황은선 대표이사로, 지난 3일 해남군청을 찾아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제에 2000만원을 기탁했다.

황은선 이사는 배우자인 해남 현산면 출신 김영국 대표와 함께 2017년부터 나주에서 가축약품회사인 ㈜이레가축약품을 운영 중이다. ㈜이레가축약품은 전남 동물용 의약품 공급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회사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양산시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추진

양산시는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과 친환경 수송부문 촉진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보급 예정인 전기자동차는 승용 800대, 화물 200대, 승합 22, 어린이통학 차량 2대, 이륜 38대이며 수소자동차는 승용 60대, 승합 7대로 총 1129대이다. 시는 1차로 오는 6일부터 전기승용 600대, 전기화물 140대, 어린이통학차량 2대, 수소승용 60대를 지원하고, 나머지 물량은 오는 7월에 보급할 예정이다며 올해 총 176억원이 투입된다.

/양산(경남)=손병호 기자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240억 지원

경남은행과 각 10억씩 출연 전년 상반기비 140억 확대 재원 2.5% 이자, 1년간 지원

창원특례시는 오는 10일 시 접견실에서 경남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예경탁 경남은행장,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이번 협약식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조성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창원특례시와 경남은행이 각 10억원씩을 출연해 총 240억원의 융자규모를 확대 조성함으

로써 전년 상반기 대비 140억원이 확대 지원된다.

시는 출연금 외에도 보증 재원의 2.5% 이자를 1년간 지원하고, 경남은행은 대출시행,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상공인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받는 혜택이 주어지며 기존 경남도 자금을 받았더라도 최대 5000만원 안에서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보증 상담을 신청해 보증심사를 받은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갖고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영양군 희망나눔캠페인.

영양군, 희망나눔캠페인 2.5억 성금 모금

역대 최고 모금액 달성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영양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통해 총 2억 52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양군이 역대 최대 모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정신이 빛을 발한 결과로 평

가된다.

캠페인 초기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성금 모금이 우려됐지만, 소외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단체, 군민들의 나눔 참여 열기 덕분에 역대 최고 모금액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희망2025나눔캠페인'은 종료됐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남도,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 확대

대상지 175곳 → 196곳으로 확대

경남도는 지방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11개 시군 26개소에 도비 499억원을 포함해 587억원을 투입해 수량 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급수 취약지역에 108.8km 배수관을 매설하고, 21개소에 가압장과 배수지를 설치한다.

또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의 지방 상수도 공급 지원사업 대상지를 기존 175개 면 지역에서 196개 읍·면 지역으로 확대해 급수 취약지역 주민들에

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은 그간 지하수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수량 부족 등 급수 불안정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등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기존 사업 범위를 읍면지역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 상수도 공급사업을 통해 경남도는 상수도 보급률을 대폭 증가하고, 급수 불안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대구시, 올해 신규공무원 364명 채용

전년 대비 151명 늘어난 규모

대구시는 2025년도 신규공무원 채용 규모를 364명으로 확정하고 직급별 선발 인원, 시험 일정, 시험 제도 변경 사항 등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채용 인원은 5급 1명(일반의무), 7급 12명(일반행정 2명, 수의 10명), 9급 335명(일반행정 및 시설 등), 연구·지도직 16명 등 25개 직류에서 총 364명이다.

이번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151명(58%) 증가한 것으로, TK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주요 시정 과제를 추진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한반도 제

2의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가 모든 임용시험에 적용되며, 전국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 일정, 선발 예정 인원, 시험 제도 변경 사항 등은 대구시 홈페이지 내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혁신 100+1' 과제를 완수하고 선진 대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준환 기자 kih9@

통영시

올해 학교급식비 95억 지원

통영시는 올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단가를 5.4% 인상해 관내 38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만3000여명에게 학교급식비 95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에도 시는 경상남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급식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한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91억원을 투입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에게 학교급식을 무상지원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식품비 지원단가 인상과 함께 우수하고 안전한 도내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우선 사용해 급식 질을 높인다. /통영(경남)=손병호 기자

필립모리스 “비연소 제품 독보적... 유해물질 현저히 감소”

아이코스 일루마 i 시리즈 출시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신제품 '아이코스 일루마 i (IQOS ILUMA i)' 시리즈를 출시하고 소비자 등이 전자담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게 비연소 제품 전환에 속도를 가한다.

윤희경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코스 일루마 i 시리즈 판매 개시를 알렸다.

아이코스 일루마 i 시리즈는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라인업 중 가장 최신이자 혁신적인 제품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번 출시를 통해 회사의 '담배연기 없는 미래' 비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년 국내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처음 출시된 이후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소매 판매 시장 규모는 3조 5546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올해 시장 규모는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바실리스가젤리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동아시아, 호주 및 글로벌 면세 사업부 총괄 사장은 “한국은 글로벌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시장이다”라며 “필립모리스는 혁신적인 비연소 제품 개발을 위해 125억달러(한화 약 18조원)를 투자했고, 그 결과 비연소 제품 사업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고 말



윤희경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가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이코스 일루마 i 출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한국필립모리스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신제품 아이코스 일루마 i(IQOS ILUMA i) 시리즈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1

‘담배연기 없는 미래’ 비전 가속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소매시장 작년 3.5조, 올해 4조 규모 전망

예열 상태와 잔여 사용 횟수 등 터치스크린 통해 상태 알수있어

한국필립모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비연소제품은 글로벌 매출의 38%를 차지한다.

그는 아이코스의 혁신이 한국 성인 흡연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공중보건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태우지 않고 가열하기 때문에 일반담배에 비해 유해물질 배출이 현저하게 감소된다. 여전히 해로운 수 있고 중독성이 있지만,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전환하면 유해물질에 대한

인체 노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선보인 아이코스 일루마 i 시리즈는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이 제품 특징 중 하나는 홀더에 장착된 '터치스크린'이다. 사용자들은 터치스크린을 통해 기기의 예열 상태, 잔여 사용 시간과 잔여 사용 횟수 등을 알 수 있다.

'일시 정지 모드'는 홀더의 터치스크린을 밀어 내리면 최대 8분간 기기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이다. 터치스크린을 다시 위로 밀어 올리면 전용 타바코 스틱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을 재개할 수 있다. 일시 정지 모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홀더 1회 충전만으로 최대 3회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코스 사용자가 저마다 사용 패턴과 흡입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했다.

이흥석 한국필립모리스 비연소 제품 부문 전무는 “터치스크린과 일시정지 모드, 플렉스 퍼프 모드는 경쟁사 제품

에도 일부가 탑재된 기능이지만,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서 3가지 기능이 모두 탑재된 제품은 없다”고 강조했다.

신제품은 '아이코스 일루마 i 프라임'과 '아이코스 일루마 i' 두 가지 종류로 출시된다. 두 제품 모두 기존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와 동일하게 '스마트 코어 인덕션 시스템'이 적용돼 담배를 내부에서부터 균일하게 가열하여 일관된 경험이 가능하고, 사용 후 잔여물이 남지 않아 기기를 청소할 필요가 없다.

윤희경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는 “오늘날 글로벌 1위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로 자리 잡은 아이코스를 포함한 필립모리스의 비연소 제품은 전 세계 92개국에서 3600만명이 넘는 성인 흡연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이들이 일반 담배로부터 벗어나도록 돕고 있다”며 “성인 흡연자들에게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홈플러스 ‘돌돌말아 페스타’ 진행 월남쌈·또피야 등 반값

홈플러스가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돌돌말아 페스타’를 진행하고 월남쌈, 또피야 등 건강한 다이어트 음식 식재료를 최대 반값에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돌돌말아 페스타’는 홈플러스의 ‘M.E.A.L. 솔루션’에 따라 건강한 식사를 제안하는 행사다. 월남쌈·또피야 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채소류, 고기류, 소스류 등을 할인가에 제공한다.

특히, 행사 카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스낵토마토 ▲양파 ▲닭가슴살 10여 종 등을 할인가에 제공한다. 또,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는 ▲제주 구좌 당근 ▲냉동 새우살 3종 ▲퀵트리 피넛버터 2종 ▲비비드키친 저칼로리 소스 6종 등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또피야·월남쌈 등 다양한 식재료도 행사 품목에 포함됐다. ‘풀무원 또피야 3종’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 10% 할인가에 판매한다. /안재선 기자



가나 디저트 하우스 제품 3종. /롯데윌푸드

롯데윌푸드 가나 초콜릿 브랜딩 강화 ‘가나 디저트하우스’ 론칭

롯데윌푸드의 ‘가나’가 초콜릿 디저트로써 브랜딩 강화를 위해 ‘가나 디저트 하우스’ 브랜드를 선보인다. 가나 디저트 하우스는 깊고 진한 풍미를 전달하는 가나산 카카오를 베이스로 만든 케이크, 빵,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세상 모든 초콜릿 디저트’ 브랜드를 표방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제품은 ▲쇼콜라 케이크 ▲헤이즐넛 케이크 ▲쇼콜라 카스테라 등 디저트 3종이다. 소비자 조사에서 디저트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류로 케이크 및 빵 등이 높은 응답을 받아 베이커리 제품을 우선 선보인다.

특히 프리미엄 베이커리에 어울리는 초콜릿 풍미를 구현하기 위해 약 10개월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쳤다. 50년 가나 초콜릿의 ‘빈투바(Bean to Bar, 카카오 원두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가공하는 방식)’ 노하우를 접목해 케이크 속에 초콜릿이 그대로 녹아든 듯 부드럽고 진한 필링(빵 등에 채워진 소)을 완성했다.

쇼콜라 케이크는 지난해 3월 ‘가나 초콜릿 하우스’ 서울 성수동 팝업스토어에서 운영했던 디저트 메뉴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부드러운 초콜릿 필링이 속을 꽉 채우고 있는 프리미엄 파운드 케이크다. 첫 입부터 입안 가득 진한 가나 카카오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 작년 영업이익 25% ‘뚝’... 퇴직금 등 일회성 요인

매출액 11.5조, 전년 대비 3.3% ↑ 백화점 매출은 7.2조로 2.8% 증가 신세계가사·라이브쇼핑 ‘최대 실적’ 인터내셔널 연간 영업이익 45% 하락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전경. /뉴스1

신세계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79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1% 감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총매출액은 11조 4974억 원으로 3.3% 증가했다.

지난 4분기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8.5% 감소한 1061억 원을 기록했다. 총매출은 3조 1874억 원으로 2.1% 증가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지난해 12월 통상 임금 관련 대법원판결에 따른 추정 부담금과 면세점 희망퇴직 진행으로 발생한 퇴직금 등이 일시에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전년도 인천 공항 임대료 회계 처리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백화점, 매출 성장에도 영업이익 감소... 외형 확장 지속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총매출 7조 243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강남점 스위트파크 ▲하우스 오브 신세계 ▲대구점 스위트

파크 ▲본점 신세계스퀘어 등 신규 공간을 선보였으며 ▲강남점 남성 럭셔리 전문관 ▲센텀시티 스포츠 슈즈 전문관 ▲타임스퀘어점 패션관 등 주요 점포 리뉴얼을 통해 외형을 확대했다.

신세계에 따르면, 그 결과 강남점은 2년 연속으로 거래액 3조원을 돌파했고, 센텀시티는 지역 점포 최초로 전국 백화점 순위 3위에 등극했으며 본점과 대구신세계, 대전신세계 등도 각 지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40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 통상임금 추정 부담금 등 일회성 비용 영향이라는 게 신세계그룹 측 설명이다. 올해는 강남점 식품관 리뉴얼, 본점 헤리티지 건물 신규 오픈, 본·신관 리뉴얼 등 점포별 차별화 전략을 통해 브랜드 경쟁

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세계가사·신세계라이브쇼핑, 신세계 편입 후 최대 실적 달성

연결 자회사들 실적을 살펴보면, 신세계그룹의 신세계그룹의 가구·라이프 스타일 자회사인 신세계가사와 신세계 라이브쇼핑이 신세계 자회사 편입 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먼저, 신세계가사는 지난해 4분기 전년 대비 3.6% 증가한 매출 673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연간 매출은 2695억원, 영업이익은 10억 원을 기록했다. 상품 개발 확대와 수면 전문 브랜드 ‘마테라소’의 안정적 성장이 호실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2024년 4분기 매출 9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9억원으로 51.5% 감소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채널 이용료 증가와 통상임금 이슈 등 일시적 비용 증가로 인해 4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나, 연간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누계 매출은 3283억원, 영업이익은 1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세계인터내셔널·신세계디에프, 실적 부진... 체질 개선 나선다

연결 자회사 중 신세계그룹의 패션·

뷰티 자회사 신세계인터내셔널과 면세 사업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9% 감소한 3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3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매출 1조 3086억 원(-3.4%), 영업이익 268억 원(-44.9%)을 기록하며 실적이 부진했다. 올해 고강도 체질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자체 브랜드 리브랜딩을 추진해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면세 사업을 담당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지난해 4분기 매출 5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35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매출 2조 60억원, 영업이익 -359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신세계그룹의 복합문화·유통·부동산 개발 자회사 신세계센트럴시티는 2024년 4분기 매출 9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227억원으로 5.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3753억원, 영업이익 857억 원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3%, 7.9% 증가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코스맥스, 연간 매출 2兆 기대... 글로벌 경쟁력 확대 영향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적으로 매출 1.6兆, 영업이익 1356억 기록
생산 능력 확대, 신기술 개발로
인도 등 신흥 고객사 확보 박차

국내 대표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 DM) 기업 코스맥스가 연간 매출 2조원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반기 매출 1조원을 돌파하고 3분기 연속으로 고성장을 이뤘다.

코스맥스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으로 매출액 1조6081억원, 영업이익 1356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매출액은 2023년 연간 매출 1조7775억원의 90%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이미 2023년 연간 영업이익의 1157억원을 넘겼다.

코스맥스는 이러한 호실적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K뷰티 브랜드사의 성장세에 발맞춘 결



코스맥스 화성공장에서 자외선 차단제인 '선쿠션'이 생산되고 있다.

/코스맥스

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코스맥스는 올해도 생산 능력 확대, 신기술 개발 등으로 고객사의 해외 진출 1등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최근 코스맥스 화성 공장은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일반의약품(OTC) 제조 시설 및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적합 승인을 받았다.

코스맥스 화성 공장은 OTC 제품 생산 승인을 2016년 처음 획득했고 이번

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적합 승인을 재허가 받았다. 화성 공장뿐 아니라 미국 뉴저지 공장도 OTC 제품 생산 승인을 유지하고 있다.

코스맥스는 이러한 OTC 생산 기지를 성장동력으로 미국 자외선 차단제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맥스는 올해 자외선 차단제 생산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보다 4배 이

상 많은 고객사가 코스맥스와 협업해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 지수가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에 OTC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 미국 식품의약품(FDA)에 제조 업체 등록을 하고 지정된 인증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야 미국 내 유통·판매 가능하다.

또 코스맥스는 2023년에는 OTC랩도 설립하는 등 연구 개발부터 제품 생산까지 OTC 제품 전체 과정에서 대응해 왔다. 특히 가벼운 사용감과 다채로운 제형을 선호하는 미국 MZ세대 소비자 성향을 파악해 OTC 제품 형태와 제형을 다양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코스맥스는 신소재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국내외 산학협력도 강화한다.

코스맥스는 지난해 12월 국내 포항공과대학교(POSTECH)과 공동으로 자외선차단제 전문 연구센터 '유브이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했다. 물리를 비롯한 기초과학분야와 연계해 K뷰티 기

술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맥스는 국외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의학과와 함께 균주 개량부터 세포 디자인, 바이오 합성에 이르기까지 바이오 영역에서 기술을 확보한다.

코스맥스는 올해부터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 고객사 확보를 위한 '로코(LOCO) 프로젝트'도 실행한다. 해당 국가에서 다양한 원료와 부자재 자원을 활용해 가성비를 높이는 전략이다. 코스맥스는 로코프로젝트로 기관차(로코모티브) 역할을 할 현지 맞춤형 제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 코스맥스 측은 "지난해까지 내부 역량 강화를 마쳐 올해는 글로벌 파트너를 보다 활발하게 발굴할 계획"이라며 "기업 경쟁력과 K뷰티 성장 가능성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저속노화 트렌드 확산에 '애사비' 주목

〈애플사이다비니거〉

푸드올로지, 캔디형태 제품 출시
안국약품, 고탄량 함유 젤리 선보
티젠, 국내산 풋사과 활용 분말스틱
인테이크, 제로 칼로리 드링크 2종

저속노화 트렌드 열풍에 애플사이다비니거(애사비)가 주목받으면서 유통업계가 기존 액상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애사비'는 사과를 자연적으로 발효해 만든 천연 식초로 체중 감량은 물론 혈당 조절과 당뇨 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기준 20대 당뇨 환자가 2018년 대비 47.7% 증가하는 등 젊은 층의 건강 문제가 부상하면서 더욱 인기를 끄는 추세다.

실제로 펀딩 플랫폼 와디즈의 지난해 애사비 제품 거래액은 전년 대비 30배 급증해 누적 20억 원을 돌파했고, 키워드 검색량도 매일 2배씩 늘어 연간 3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 제품을 넘어, 혈당 관리와 건강한 식습관 형성 등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갖는 젊은 소비자층의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유통업계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캔디, 젤리, 분말 스틱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하며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



애사비 크리스피.

/푸드올로지

고 있다.

푸드올로지는 지난해 10월, 캔디 형태의 '애사비 크리스피'를 출시했다. 코스맥스바이오의 미니탭 기술을 적용한 캔디에 100% 유기농 영국산 애플사이다비니거 원액을 함유했고, 설탕 등의 첨가물 없이 사과 통째로 자연 발효한 사과초모식초를 담았다. 애사비의 핵심 성분인 '초모'를 작은 캔디 1알에 47%까지 압축해 물 없이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2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증정 할인 이벤트도 전개한다.

안국약품은 지난달 'The 핑글한 애사비 5000' 젤리를 선보였다. 한 포당 5000mg의 고탄량 애사비를 함유하면 서도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강한 향을 낮

췌다. 젤리에는 나타드 코코를 첨가해 식감과 포만감을 개선했으며, 저당 설계로 부담 없는 섭취가 가능하다.

티젠은 지난해 12월 국내산 풋사과를 활용한 '애플사이다비니거 분말 스틱'을 출시했다. 스틱당 1500mg의 애사비와 함께 열에 강한 4세대 포스트바이오틱스 3종 혼합 유산균을 함유했으며, 알코올, 초산, 말로락틱으로 3단계 자연 발효를 거친 분말을 사용했다. 7~8월에 수확한 풋사과를 활용해 사과주스 본연의 맛을 구현했다.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로 출시된 제품도 있다. 인테이크의 자회사 슈가로로는 최근 '슈가로로 애사비 드링크' 2종을 출시했다. 탄산 버전과 비탄산 버전으로 구성됐으며, 두 제품 모두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살을 빼는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를 끌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없더라도 혈당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등 노화 속도를 늦추는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아졌다"며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하는 기존 애사비의 불편함을 개선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셀트리온 '베그젤마', 유럽서 처방 '1위'

29% 점유율... 출시 2년 만의 성과

셀트리온의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 (사진)가 유럽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나타내며 처방 1위 자리에 올라섰다.

5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베그젤마는 유럽에서 29%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오리지널을 포함한 경쟁 제품을 모두 제치고 베바시주맙 처방 1위를 기록했다. 2022년 10월 유럽에 출시된 이후 단 2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 특히 해당 분기에만 전분기 대비 9%포인트 크게 오르며 경쟁 제품들과의 격차를 벌이는 데 성공했다.

셀트리온은 후발주자인 베그젤마가 빠른 속도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배경



으로 유럽 법인의 적극적인 직접 판매(직판) 활동을 꼽았다.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2020년 '렘시마'를 시작으로 2022

년 항암제 '허쥬마'와 '트룩시마'까지 전체 판매 제품을 모두 직판으로 전환했다. 이후 국가별로 설립된 해외 법인에서 입찰 기관 및 처방의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베그젤마를 비롯한 후속 제품들의 시장도 빠르게 공략했다는 설명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림의료원, AI로 의무기록 작성시간 단축

코난테크놀로지와 공동개발
년 7.6만 → 3.8만 시간 절약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오는 7월까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코난테크놀로지와 의료 분야에 특화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공동개발한다고 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입원환자 전주기 기록지 작성 및 의료원 지식상담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향후 개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의무기록 작성 플랫폼은 환자 접수 시 입력한 데이터와 의료 정보를 활용해 '의무기록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갖춘다.

한림의료원에 따르면, 환자의 입원과 퇴원에는 입원기록지, 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 전출기록지 등 여러 종류

의 의무 기록이 필요하다. 한림의료원 산하 5개 병원 의료진은 연간 약 115만 건의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의무기록 한 건당 평균 약 4분이 소요돼, 전체 작성시간은 연간 약 7만6000시간에 달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이 도입되는 경우, 의무기록 작성시간이 절반으로 줄어 연간 약 3만8000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한 의료 지식을 상담해 주는 인공지능 챗봇도 개발된다. 대화형 질문을 통해 각종 의료 규정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공지능 챗봇은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응용해 한림의료원 교직원들을 위한 실시간 정보 검색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웹과 모바일에서 24시간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샘표, 정월대보름 맞이 채소시장 연다

'농부시장 마르쉐@' 기획

우리맛연구중심 샘표가 한 해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9일, '농부시장 마르쉐@'가 기획한 '채소시장@총무로'에 참여한다. 최근 건강과 환경,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직

접 장을 보고 요리해 집밥을 즐기려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농부들이 거둔 각종 채소와 샘표 우리맛연구팀이 다년간 연구한 각 채소의 특성, 손질 및 레시피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샘표는 채소와 장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이

즐기고, 누구나 쉽고 맛있게 요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정월대보름을 앞둔 일요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는 '샘표 새미네부엌X마르쉐 채소시장'에서는 21명의 농부들이 손수 채집해 말린 각종 나물과 오곡밥의 재료가 되는 잡곡, 부럼 깨기에 쓸 견과를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5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저마다의 고민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뽕송뽕송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인터파크 바로가기

원작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작가 김지윤)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운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처 & 인터파크 | 문의 02-764-9102



Sh수협은행, 음악저작권협회 주거래은행 선정

Sh수협은행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주거래은행으로 재선정됐다. Sh수협은행은 음협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식에서 신학기 Sh수협은행 은행장(오른쪽)이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과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h수협은행



부영그룹, 시무식 개최... 28억 출산장려금 지급

부영그룹이 5일 2025년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28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종근 회장(앞줄 가운데) 등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부영그룹



기술교육대, '직업기술교육훈련 포럼·세미나' 개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5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2025년 국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포럼'과 '글로벌 직업훈련대학 협의체(TVET-CAMPUS) 세미나'를 개최했다. 60여 명의 아세안 국가 정부관계자 및 국내외 직업훈련전문가, 대학관계자 등이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



덕성여대, 캄보디아 해외봉사 활동 실시

덕성여자대학교는 덕성해외봉사단 단원 학생들이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7박 9일간 캄보디아 해외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덕성여대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 진행됐다. /덕성여대

아산나눔재단 '마루' 입점 스타트업 모집

아산나눔재단이 기업가정신 플랫폼 '마루'에 입주할 스타트업을 오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마루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엔 선발되는 입주 스타트업은 오는 4월부터 최대 1년 6개월간 마루180과 마루360에 입주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자격 요건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직원 수 3~12인 규모의 국내 스타트업이다. 사행 및 유흥 업종은 제외되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우대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농심, 삿포로에서 후라면 매운맛 알린다

눈축제 기간 중 아이스링크 운영 시식부스 마련... 소비자 소통 강화

농심이 일본 삿포로시와 협업체 샷포로 눈축제 기간중 '신라면 스마일링크 삿포로' (이하 신라면 아이스링크)를 운영한다.

신라면 아이스링크는 일본 샷포로 오도리공원에 조성됐으며, 일본 최대 겨울축제인 샷포로 눈축제 기간인 11일까지 운영된다.

농심은 '겨울의 매운맛은 더욱 즐겁다' (冬の辛いのは、もっとたのしい)라는 슬로건 아래 아이스링크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신라면 시식부스'를 마련했다. 시식부스에는 하루 3000명 이상이 방문해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 농심은 행사기간 샷포로 시내 8개 호텔 체크인 고객에게 신라면컵 제품을 제공하는 샘플링 이



농심이 일본 삿포로 눈축제 기간 동안 '신라면 아이스링크'를 운영한다. /농심

벤트와 신라면 아이스링크 전용 기념품 판매점도 운영하고 있으며, 눈축제 기간에 맞춰 한정판 패키지로 운영 중인 '신라면 윈터 에디션' 마케팅을 확대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삿포로 눈축제는 대회 170만명 이상의 국제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겨울 축제인만큼 신라면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겨울 샷포로 거리에서 스케이팅을 즐기는 이색 체험을 통해 현지인과 관광객에게 농심 신라면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한양사이버대, 천경열 감독에 감사장 수여

광고미디어학과 발전 기여 공로 '영상제작 등 최신 실무기법 교육'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는 학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광고 홍보 전문가 천경열 감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광고미디어학과 학과장 서구원 교수는 "천경열 감독은 30여 년의 경력을 가진 영상 전문가로 학과 커리큘럼 운영에 자문을 해주었으며, AI를 기반으로 한 영상제작 등 다수의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최신



서구원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왼쪽)와 천경열 감독(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양사이버대

의 실무 기법을 습득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여 감사장을 수여했다"

고 밝혔다.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는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수년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2024년에는 학과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재학생들이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특강과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thj@

중진공, 자전거·해양레저 기술개발 지원

'산업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오는 17일까지 '2025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5일 중진공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05년부터 자전거·해양레저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우수 기술 국산화를 위해 레저장비기술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자전거·해양레저장

비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다.

모집 분야는 총 2개 부문으로, 자전거 부문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 킥보드), 해양레저장비 부문은 수상레저안전법에 해당하는 관련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중진공은 레저장비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각 부문별 과제를 대

상으로 1년간 최대 1억3500만원(총 사업비의 75% 이내)까지 지원한다.

레저장비기술개발사업 참가 희망기업은 오는 17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제조혁신지원처로 문의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 영위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레저장비 분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중진공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폴리텍대학, 39개 캠퍼스 8866명 졸업

김문수 고용부 장관 졸업식 참석

한국폴리텍대학은 5일 전국 39개 캠퍼스에서 총 8866명의 학생이 졸업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폴리텍대학은 직업교육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생애 전반에 걸쳐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연을 가진

학생들이 전문 분야를 배우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졸업식)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고용부 장관이 폴리텍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

구조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끊임없이 지식과 기술을 갈고닦는다면 변화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며 졸업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해줄길 당부했다. 이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졸업생 2명에게 직접 장관상을 수여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며, 여러분이 배운 기술을 마음껏 발휘해 미래를 변화시킬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진종욱 前 국표원장 자동차연구원장 취임

한국자동차연구원 신입 원장에 진종욱 전 국가기술 표준원장(사진)이 취임했다.



5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진 원장은 지난 3일 한국자동차연구원 천안 본원 대강당에서 임광훈 경영부원장 등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대 원장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진 신임 원장은 부산 동아고,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94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뒤 지난 1월까지 2년간 국표원장을 역임했다.

/세종=한홍수 기자 hys@

이운재 숭실대 총장 "대학 리부팅 나설 것"

이운재 숭실대 제16대 총장(사진)이 "초혁신을 통해 대학을 '리부팅(Rebooting)'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숭실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숭실대는 지난 4일 오전 11시 한경직기념관 대에배실에서 이운재 제16대 총장 취임예배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해 12월 5일 제16대 총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5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4년이다. /이현진 기자

인사

◆OK금융그룹 ◇신규 이사대우 △OK저축은행 리테일기획부 이규만 △OK저축은행 모기지사업부 정민수 △오케이홀딩스 인사부 박준형 ◇임원 승진 △OK저축은행 기업금융1본부 상무 차영섭 △오케이홀딩스 회계본부 상무 백승권

부음

▲ 이상임씨 별세, 김부섭(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장)씨 모친상 =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7일. ☎ 02-3010-2000 ▲ 최기순씨 별세, 양용석(선사인 대표이사)·양호섭(테크원 대표)·양윤섭(전 기아차 책임매니저)·양종인(오토패션 대표)·양미숙씨 모친상=4일, 인천새천년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7일. 032-552-3100 ▲ 김성규씨 별세, 이경욱(참곡 회장, 전 부산시 농구협회 회장)씨 장인상=4일,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영덕아산병원장례식장, 발인 7일. 054-730-0168 ▲ 이기승(서현 부회장)씨 별세, 이용상(국민일보 산업2부 차장)씨 부친상=4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B 102호, 발인 7일. 070-7606-4188

“잘 지내길 바라”



홍경안 역
시시일과

이별은 흔적을 남긴다. 특히 사람이 짙을수록 헤어짐의 생채기도 깊다. 흔히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는 말로 위로하지만, 사랑하는 이와 작별한 이들에게 공허함만 부풀릴 뿐이다. 사랑과 상실은 동일한 서사 안에서 반복됨을 모르진 않음에도 그렇다.

프랑스 개념 미술가 소피 칼(Sophie Calle)은 사랑과 이별이라는 일상적 경험을 재치 있는 방식으로 풀어 미술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내용은 이렇다. 그녀는 2004년 연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편지를 받았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사랑한다면 서로 갈라설지 원하는 듯한 편지에 같은 대체 어떻게 답장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마지막에 쓰인 “Take care of yourself(잘 지내길 바라)”라는 문장은 꽤나 혼란스러웠다. 다시 만나자는 것 같기도 하고 떠나겠다는 것 같기도 한,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일까 싶었다.

이에 소피 칼은 그 편지를 문학가, 철학

자, 기자, 정신 분석가, 배우, 가수, 변호사, 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107명에게 각자의 전문적 관점으로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철학자는 사랑과 이별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편지 속 문장이 어떻게 윤리적·존재론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폈고, 정신 분석가는 편지를 보낸 사람의 심리 상태와 무의식적 의도를 추론했다. 이 밖에도 댄서는 춤을, 가수는 노래를, 변호사는 법적인 관점에서 책임과 계약적인 요소를 뽑아냈다.

소피 칼은 그 결과물과 과정을 글과 사진, 영상 등으로 기록했다. 전시를 열고 책을 만들었다. 이후 그의 ‘이별 극복기’는 거대한 다원 예술 프로젝트로 완성됐다. 바로 2007년 베니스비엔날레 프랑스 국가관에서 처음 공개된 ‘Take care of yourself’ 프로젝트이다.

개념 미술의 중요한 특징인 텍스트와 대중 해석 가능성에 주목한 이 작업은 ‘부제’를 화두로 한 전작들의 연장이다. 그녀는 1981년 베니스의 한 호텔 객실 청소부로 일하며 손님이 나간 객실을 촬영해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자취를 담은 ‘L’Hote’(호텔, 1981)이라는 작품을 만든 적이 있다.

에펠탑에 작은 방을 설치해 놓고, 방문

객들과 같이 누워 대화를 나눈 작업 ‘Room with a View’(전망 좋은 방, 2002)에서 마냥 ‘Take care of yourself’ 프로젝트 역시 누군가의 참여로 이뤄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베니스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며 그의 행적을 기록한 ‘Suite Venitienne’(베니스의 추적, 1980)이나, 자신이 타인의 관찰 대상이 되는 경험을 다룬 ‘The Shadow’(그림자, 1981) 등은 ‘Take care of yourself’와 마찬가지로 사생활과 공적 영역, 관음과 관찰을 넘나드는 구조로 돼 있다. 다만 ‘Take care of yourself’의 경우 이전 대비 사적인 이야기를 사회적·문화적 담론으로 확장시키면서, 예술과 삶의 경계가 보다 얇아진 측면이 있다. 실재를 벗어나 심리의 부재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 예술은 더 이상 작가 개인의 내러티브에 머무르지 않고 집단적 해석을 통해 얼마든지 열린 결말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라는 것도 하나의 차이다.

소피 칼은 프로젝트를 진행될수록 이별의 아픔도 무뎠다고 했다. 그녀는 가슴 아픈 이별을 객관화해 공유함으로써 마음속 상흔을 완전히 털어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이의 바람대로 잘 지냈다. 아니, 잘 지내고 있다.

/미술평론가

혁신에 유학과 없더라



김지수첩
김서현 (산업부)

중국의 작은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세상을 뒤흔쳤다. 139명의 소수 인력으로 빅테크에 필적하는 AI 성능을 내고, 개발 비용과 시간이 1/10밖에 들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딥시크 쇼크’ 이후 GPU 1만5000장을 올해 말까지 구매하겠다고 발표했다. 언론은 샘 올트먼 CEO 방한 소식에 정체가 된 한국의 AI 기술이 대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쏟아냈다. AI 강국의 꿈을 꾸지만, 과연 GPU를 MS나 구글을 제치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샘 올트먼 CEO가 한국의 기업들과 무엇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잊은 것이 있다. ‘인재’다. 딥시크의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개발진이다. 딥시크를 개발한 인력 대부분은 해외 유학 경험 없다. 딥시크 R1을 만든 핵심 인력, 엔지니어 뤼푸리(30)는 베이징사범대학과 베이징대 AI 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실습하며, 해외 경험 없이 국내 교육만으로 딥시크 개발의 핵심 인재가 됐다.

중국은 2017년부터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내놓고 AI 핵심 인재 1만 명 육성, 학과·연구소 확충, 산학 협력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행해왔다. 칭화대, 베이징대 등 주요 대학마다 AI 과정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에 2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며 AI 관련 논문 수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이공계 최고 수험생들이 대부분 의대로 진학한다. 의대 쏠림을 막으

려 무전공 선발을 시도했지만 서울대조차 3.7대 1로 실패했다. 높은 성적을 받더라도 당연히 의대로 향하는 현실 속에서, 인재 육성과 연구 인프라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외 유학 없이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인재를 배출하기 어렵다.

모 반도체 기업을 다니는 A씨는 어린 시절 과학자를 꿈꿨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한국에선 연구 인프라도 부족하고, 해외 유학 경험 없이는 인정 받을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기업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요즘 의대 입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중국은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캐치업 레이즈만 날리는 단기 정책에 머물러 있다. 단기 선전이 아닌, 인재 육성, 연구 환경 개선, 사회적 인식 전환 등 기본부터 하나씩 해결해야 할 때다.

/seo@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6일 (금 1월 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은 변하지 마라. 48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좀 더 노력하라. 60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72년생 침묵해야 모두가 편하게 간다. 84년생 착한 친구를 만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37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 49년생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적다. 61년생 손풍에 뒤틀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73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를 높이고 실속도 챙긴다. 85년생 내가 먼저 행동해야 상대도 따라온다.



38년생 여기저기 계속되는 지출에 삶이 지겨워진다. 50년생 가진 것이 없으니 가족도 부담이 될 것이다. 62년생 늦었다고 포기 말자. 74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따라서 상쾌. 86년생 혼자서 외롭지만 둘은 괴롭다.



39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51년생 말은 쉬우나 주위 담을 수 없으니 조심. 63년생 혼자서라도 웃으면서 지내라. 75년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날. 87년생 의견충돌이 염려되니 고집을 조심.



40년생 힘든 일은 기도로 극복. 52년생 호감이 가는 이상의 유혹이 있다. 64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려오니 이득이 많은 날. 76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 주면 보답을 받는다. 88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걷어간다.



41년생 승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 53년생 힘든 길이라도 가다 보면 좋다. 65년생 매사에 귀찮고 심드렁하다. 77년생 비상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89년생 아제의 친구가 뒤에서 씩씩이 배신감을 느낀다.



42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다. 54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보람이 있다. 66년생 동업자에게 욕심을 부리면 발목을 잡힌다. 78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하니 충전이 필요한 날. 90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까 걱정된다.



43년생 자식과 살려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한다. 55년생 불평은 운을 깎는다. 67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지체. 79년생 머리만 믿고 있다는 일을 그르친다. 91년생 자식의 잉태 수이니 마음을 정갈하게.



44년생 재능 많은 자식 때문에 경제적 곤란을 겪는다. 56년생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답을 찾자. 68년생 민망한 일을 겪을 수 있다. 80년생 평온한 바다에 한가로이 떠다니는 하루이다. 92년생 마음을 고칠 수 없다면 미련 없이 버려라.



45년생 행복은 마음에서 비롯. 57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사용하면 된다. 69년생 용띠 닭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 81년생 걱정이 해소되니 도서관에서 자료를 마무리. 93년생 창업은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46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58년생 굴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범이니 희망을 품어라. 70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82년생 손풍은 배가 가야 할 방향으로 부는 바람. 94년생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니.



47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한다. 59년생 주변이 인정해 주니 마음이 든든하다. 71년생 변화가 있어도 영향은 미미하다. 83년생 눈앞의 실수를 챙기다 큰 이익을 놓친다. 95년생 하극상의 기질은 세월이 가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



김상회의四季 立春을 지내며

절기를 모르는 사람도 입춘이 되면 추위도 물러갈 때가 됐을 뿐 아니라 곧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도 멀지 않았음이다. 입춘 후 2주쯤만 지나면 대동강물이 얼동설한에 얼었던 대동강물도 녹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추위도 옛 추위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봄 춘(春) 자만 들어도 추위는 벌써 그 힘이 약해짐을 알 수 있다. 햇살 좋은 입춘날에 가정집 대문에는 입춘대길이라고 크게 써 붙인 것을 예전에는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이러한 입춘축(立春祝)을 보기가 흔치 않다. 한 이십 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집이나 할 것 없이 대문 기둥 벽 문짝 등에 커다랗게 글씨를 써서 붙이곤 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고 복이 가득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집 대문을 비롯해 곳곳에 써서 붙였다. 태양력을 기준으로 할 때 입춘부터 정월로 친다. 따라서 새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원화소복(遠禍召福)의 의미를 담아 입춘축을 써서 붙이는 것이 당연한 행사였다. 원화소복은 글자 그대로 화를 면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도 큰 사찰이나 작은 암자에서는 입춘이 시작되는 절입 시간에 맞추어 입춘 맞이는 물론 삼재 소멸을 위한 불공을 함께 드린다. 일반적으로 입춘대길(立春大吉) 또는 건양다경(建陽多慶)을 주로 써서 붙이며 개문만복래(開門萬福來)의 문구 역시 애용된다. 입춘대길은 입춘을 맞아 좋은 운을 기원하는 것이고 건양다경은 맑은 날이 이어지고 좋은 일과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비는 것이다. 개문만복래(開門萬福來)는 문을 열어 놓으니 만 가지 모든 복이 들어오라는 발원을 담고 있다. 국태민안(國泰民安)의 글귀를 붙이는 예도 있는데,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도 잘 먹고 잘살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책 출간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2 8 6 1 2 9
1 7 2 6 9 9 2 8 8
9 8 1 2 7 8 6 9
9 6 9 2 8 8 1 2 7
8 2 9 7 8 6 9 2 1
7 2 8 8 1 2 9 9 6
2 1 6 9 9 7 8 8 2
2 9 7 1 2 8 6 9 8
6 8 8 9 2 9 7 1 2
2 8 9 9 1 7 8 6 2
8 6 9 1 2 8 9 2 7
6 7 8 2 9 2 8 9 1
9 1 8 8 2 6 2 7 9
7 9 2 2 6 8 1 9 8
8 2 2 6 7 9 9 1 8
2 9 7 9 8 9 2 2 6
1 8 6 8 9 1 7 8 2
9 2 1 7 8 2 6 8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60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0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기부, 韓 AI 스타트업 지킨다... “선순환 생태계 구축”

오영주 장관, AI 개발동향 점검
신제품·서비스 개발 전략 논의
“기업·시장 확대... 혁신 뒷받침”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열린 ‘글로벌 AI 개발 동향점검 및 대응방안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공습에 스타트업 정책 등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 등 바빠졌다.

중기부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오영주 장관이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대표 등 전문가 20여명과 최신 AI 개발 동향점검 및 활용·확산 방안 회의를 가졌다.

오 장관은 “딥시크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지만 AI를 활용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AI기술 도입과 활용은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지원하

는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AI 활용 여부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AI센터장, 전세계 약 1억명이 가입한 수학 특화 AI모델 ‘반다’를 개발한 매스프레소 이용재 대표, 금융·법

률·의료 등 산업별 AI 언어모델 솔루션 개발로 KT 등으로부터 1000억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한 업스테이지 이활석 CEO(최고기술임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정우 센터장은 “미국처럼 전문학적 투자가 아니라도 강력한 사고형 AI 개발 가능성을 딥시크가 보여줬다”며 “정부는 국가AI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완공하고 인공지능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AI+X’ 전략을 통해 산업별 전문지식과 인공지능 추론 역량을 결합,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AI 발전 단계는 ▲1단계(Infra:GPU, 데이터센터, 전력, 클라우드) ▲2단계(Edge:AI스마트폰·PC) ▲3단계(Applications:개인비

서, 자동 에이전트) ▲4단계(Physical: 자율주행, 휴머노이드)로 나뉜다.

특히 올해 이후에는 중앙처리장치(CPU), 데이터센터 등 하드웨어 중심의 1단계를 지나 AI스마트폰, AI에이전트 등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2~3단계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도 미래 AI 진화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의 신제품·서비스 개발 전략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오 장관은 “정부도 AI 활용을 확산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함으로써 AI 기업과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다시 기업들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AI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김종호 이사장 “중소벤처기업 성장촉진 집중”

기보 경영전략워크숍

‘위기를 넘어, 미래로!’ 주제 진행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역할 충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이 ‘2025년도 제1차 경영전략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보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들의 혁신성장 지원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역량을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기보는 5일 부산 본사에서 김종호 이사장을 비롯해 임원, 부장·전국 영업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1차 경영전략워크숍’을 개최했다.

‘위기를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지난해 경영성과를 살펴보고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보의 현안 및 향후 추진계획 ▲기보 특화 생성형 AI 시연 ▲글로벌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

론을 통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보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기보는 올해 신산업, 기술소공인, 청년창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면서 K-TOP 고도화, 민

간 중개기관과의 기술이전 공동중개,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지원 등을 통해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정책 연구기능 강화 및 기보벤처캡, 글로벌 유니콘프로젝트 등 벤처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제1호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증대돼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에 커다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기보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적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두산로보틱스, VRNJ에 협동로봇 300대 공급

유럽 이어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두산로보틱스가 동남아 지역에 대규모 협동로봇을 공급하면서 북미, 유럽에 이어 해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두산로보틱스는 태국 방콕에 위치한 로봇 시스템통합(SI) 업체 ‘VRNJ’와 ‘협동로봇 300대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MOU에 따라 자사 협동로봇 모델 4종류(A, H, M, P 시리즈), 300대를 2년간 VRNJ에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 중 60대를 선발주받았다. 또 양사는 생산현장에 적용할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수요처 발굴을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는 “동남아 지역은 중국에 이은 제2의 생산거점으로 신규 공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공장 설립 단계에서 생산성 향상, 작업자 안전 등을 고려해 협동로봇을 적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큰 편”이라면서 “현지 지역 SI업체와의 협업과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대규모 수주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적합성 평가 지원

선착순 접수... 조합당 최대 125만원

가공인 자격 취득 비용을 조합당 최대 12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단체표준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교육과 자격시험은 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 및 유지 관련 교육 ▲표준 작성 교육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 종사자 교육 ▲기술사·기사·산업기사 교육 및 자격시험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협동조합 적합성평가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접수는 6일부터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나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의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사업 지원 대상은 법령 등에 근거해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에는 소속 임직원의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비용과 국

/김승호 기자

교원 웰스 ‘에어가든 Lite’ 2종 출시

교원 웰스(Wells)가 공기청정기신제품 ‘에어가든 Lite’ 2종(사진)을 출시했다.



5일 교원 웰스에 따르면 에어가든 라이트는 자사 모델 최초로 ‘항균더블케어필터’를 도입했다.

항균 소재 필터가 공기청정기 속 세균 유입과 증식을 방지하면서 변화하는 집안 환경 및 상황에 따라 맞춤 케어를 제공한다.

또 종합정정점수기능을 추가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김승호 기자

N32, 경기도·강남권 등 핵심상권 진출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개소
강남점에 팝업형태 매장

교, 분당, 동탄을 아우르는 경기 남부 지역 핵심 상권에 위치해 자녀를 둔 가족 단위 고객을 비롯해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와 이사 고객 등 다양한 방문객 유입이 기대된다.

‘비건 매트리스’ N32가 신세계백화점 사우스시티점(옛 경기점)과 서울 강남점에 각각 자리하며 소비자와 접점을 넓힌다.

N32 신세계백화점 사우스시티점에서는 ▲N32 폼 매트리스 ▲N32 스프링 매트리스 ▲N32 레귤러 토퍼 ▲N32 모션 커브드 베이스II 등 전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다.

5일 시몬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사우스시티점 6층에 문을 연 ‘N32 신세계백화점 사우스시티점’은 기존 침대 매장에서 탈피해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푸르른 자연을 형상화한 각종 조형물과 카펫, 오브제 등으로 친환경 연출을 선보인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9층에 문을 연 ‘N32 신세계 강남’은 팝업 형태의 매장이다.

사우스시티점은 용인 뿐만 아니라 광

N32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도 ‘N32 폼 매트리스’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두번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도 구속기로... “尹 탄핵은 북한 지령”
▲ “여성이라고 호봉 낮게?”... 민주노총, 황당 차별 ‘고발전’

▲ 모르는 여성에 ‘사커킥’ 날린 40대... 2심 징역 25년
▲ 설날 밤 학교 운동장서 드리프트 주행한 20대 입건



▲ 전광훈 목사 “폭력 안 된다고 강조... 경찰 조사 응할 것” /사진 뉴스스
▲ 서부지법, 난동 보름만 재판 방청 재개... 정상화 시동



필립모리스
“비연소 제품 독보적
유해물질 감소”
니



Life

코스맥스
연간 매출 2兆 기대
해외 경쟁력 확대 영향
L2



대학 등록금 16년 만에 인상... 103곳 확정, 동결은 43곳뿐

사총협 “재정난 심화로 불가피”
인하대·성신여대 등 5% 이상 ↑
5.49% 법정 상한선 올린 대학 5곳
동결 43곳... 44곳 인상 여부 논의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하는 이화인 32339인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마친 후 본관으로 행진해 문이 닫혀 있어 피켓을 붙이고 있다. /뉴스시

지금까지 국내 4년제 대학 54%에 해당하는 103곳이 오는 1학기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 중인 대학은 44곳으로, 최종 인상대학은 130곳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54.2%에 해당하는 103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인상 대학 중 사립대와 국공립대학은 각각 151곳, 39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에서 52개교, 비수도권 대학에서 51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인상률을 살펴보면, 등록금을 5.0~5.49% 수준에서 인상한 대학이 47곳(45.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대학 5곳은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인 5.49%에 맞춰 인상을 결정했다.

이화 4.0~4.99%(37곳·35.9%) ▲ 3.0~3.99%(8곳·7.6%) ▲ 2.0~2.99%(2곳·2.0%) ▲ 1.0~1.99%(1곳·1.0%)로 각각 집계됐다.

주요 대학 인상율은 ▲경희대(5.1%) ▲고려대(5.0%) ▲광운대(4.85%) ▲국민대(3.80%) ▲덕성여대(4.85%) ▲동국대(4.98%) ▲동덕여대(4.20%) ▲상명대(4.95%) ▲서강대(4.85%) ▲성균관대(4.9%) ▲성신여대(5.3%) ▲세종대(2.5%) ▲숙명여대(4.85%) ▲숭실대(4.95%) ▲연세대(4.98%) ▲이화여대(3.1%) ▲인하대(5.2%) ▲중앙대(4.95%) ▲한국외대(5.0%) ▲한양대(4.9%) 등이다.

반면 지금까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은 전체 대학 22.6%에 해당하는 43곳에 그쳤다. 대학 44곳(23.2%)은 여전히 등록금

인상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41곳은 사립대, 3곳은 국공립 대학이다. 이중 절반가량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다고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130여곳에 달하는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사총협은 지난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정상적인 대학 운영과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난이 심화해 대학 경쟁력이 추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등록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등록금 동결을 유지해 온 16년간 물가인상으로 실질적인 등록금 수입이 1/3로 감소해 재정부담이 가중됐고, 우수 교수 초빙,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 시설의 개보수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계속된 복지 개선과 시설투자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상된 등록금의 사용처와 활용계획에 대해 각 대학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서비스 향상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처장은 “대학들은 실험 및 실습 기자재 개선과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수 채용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교육시설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장학금 등 학생 복지 향상과 교육 품질 개선에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총협은 매년 되풀이되는 등록금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며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진흥법을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시적인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연장하는 한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처장은 “정부는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들이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행·재정 규제를 개선해 대학들이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동남권 주민 66% “안전 체험관 필요”

미취학 아동 부모 76% “체험교육 절실”
성인 대상 프로그램 확대·홍보 필요

서울 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 사는 시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동남권 내 안전 체험관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안전 교육 수요에 발맞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여론 조사 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작년 10월 18~25일 만 19세 이상 동남권 거주자 1000명 대상으로 벌인 안전 체험관 관련 시민 의견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6.4%가 동남권에도 안전 체험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안전 체험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미취학 아동인 자녀를 둔 응답자 열에 일곱 이상(76.4%)이 동남권에 안전 체험관이 조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 안전 체험관은 소방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시민들의 재난 대처 능력과 안전 의식 함양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광나루 안전 체험관(광진구 능동)과 보라매 안전 체험관(동작구 신대방동)이 운영되고 있다.

서던포스트는 “미혼(66.3%)이거나 자녀가 없는(60.6%) 응답자의 경우에도 과반수가 서울 동남권에 안전 체험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확충을 희망하는 답변이 많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 체험관이 전 연령을 대상으로 운영 중임에도 프로그램 대부분이 아이들을 타겟으로 운영·홍보돼 성인들도 참가 가능하다는 점이 등한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성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남권에 안전 체험관이 생겨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재난·안전 체험 활동 공간 필요’(39.7%), ‘안전 교육에 대한 수요 증대’(32.5%), ‘학교 안전 교육 자원 부족’(19.1%), ‘지역적 실태’(8.5%)를 그 이유로 들었다. /김현정 기자 hjk1@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확대 설치

서울시, 2030년까지 4000곳 설치

서울시는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을 확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녹색 보행 신호 시간뿐만 아니라 적색 대기 신호 시간까지 알려주는 신호등이다. 보행

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고 신호등 점등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무단 횡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650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시내 6차로 이상 횡단보도 총 4000곳에 적색 잔여 시

간 표시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확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이달 28일부터 신청·접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월 28일부터 이반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

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 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와 청년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계획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 3천만 원과 2025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8호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2월 6일 (木) 음력: 1월 9일

수도권 날씨 -1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31 | 해질 / 18:01

지역별 날씨: 연천 -16/-1, 동두천 -14/-2, 가평 -16/-2, 파주 -15/-1, 서울 -12/0, 양평 -14/-2, 인천 -11/0, 수원 -10/0, 용인 -10/0, 평택 -13/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장미란 차관, 장애인 국가대표 격려... “최고 경기력 펼칠 수 있게 지원” /사진 뉴스시
▲‘골프 황제’ 우즈 모친 별세... “나의 큰 팬이자 지지자”

▲“이기흥 체제서 받은 상처 보듬어 주길”... 체육회 노조, 유승민 당선인과 만남
▲뮤지컬 ‘명성황후’ 국내 누적관객 200만 돌파... 창작뮤지컬 최초

▲국립중앙박물관, 교육영상 제작해 문화유산 배움 확산 나선다
▲“캡틴아메리카에 ‘달콤한 인생’ 오마주 액션 담았어요”

SAMSUNG

Now Brief
오늘의 하이라이트

진정한 AI 폰 Galaxy S25 Ultra Galaxy AI ✨

2025년 2월 7일 출시

최신 폰 사는. 최선의 방법.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월 5,900원으로 Galaxy S25 Series를 반값에, 파손 보장까지!

1년 후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 시 최대 50% 잔존가가 보장되는 조건이며, 2년 후 반납 시 최대 40%까지 보장됩니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가입 기간에 삼성닷컴을 통해 자급제 갤럭시 S25 시리즈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삼성 개인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가입신청서 작성 후 차월부터 자동 결제됩니다. 외관 파손, 전원 작동 불가, 계정 미삭제 제품 제외 모두 반납 대상입니다.

samsung.com

상기 이미지는 갤럭시 S25 울트라이며,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일부 AI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UI/UX는 다를 수 있습니다. S펜은 갤럭시 S25 울트라에만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